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진호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체성 형성과 자전소설 읽기 교육

- 이태준 자전소설을 중심으로 -

201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권미령

정체성 형성과 자전소설 읽기 교육

- 이태준 자전소설을 중심으로 -

강진호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권미령

인 준 서

권미령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정체성 형성과 자전소설과의 관련성을 밝히고, 정체성 형성과 자전소설 읽기 교육을 살피는 것이다. 자전소설 읽기를 통해 학습자가 주체의 정체성 문제를 경험하고, 나아가 현재 자신을 둘러싼 현실 인식과 자아성찰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교육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학습자의 자아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를 형성해야한다. 학습자의 정체성 형성은 국어과 교육에서 문학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 있는 삶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이에 자전소설은 학습자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 학습자가 보다 사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적합한 소설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자전소설은 작가의 직·간접적인 개인적 체험을 소재로 서술하기에 사실성을 확보한다. 이에 학습자는 다른 소설에 등장하는 허구적인 인물들보다 실제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자전소설의 인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삶을 이해한다.

자전소설의 경험주체를 통해 나타나는 서술 주체의 당대 현실 인식과 자아 성찰 행위는 정체성 형성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전소설 읽기는 학습자의 정체성 형성을 매개할 수 있다. 자전소설을 읽은 학습자도 자전소설의 서술 주체와 같이 경험 주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인식하고 반성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동안 텍스트 이해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소설 읽기 교육을 학습자의 삶과 연결하고, 학습자의 삶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체성 형성이라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에 적합한 텍스트로 자전소설을 선정하여 정체성 형성과 읽기 교육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학습자

가 자전소설 텍스트를 이해하는 동시에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과정을 정체성을 형성 과정으로 보고, 정체성 형성과 자전소설 읽기 교육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히, 이태준 자전소설은 일제 강점기 시대 위기에 처한 주체의 정체성이 혼란한 상황과 해방 후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태준 자전소설의 경험주체가 일제 강점기 시대와 해방 후 시대를 인식하고 자아성찰을 하는 행위는 정체성 형성 과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경험 주체의 당대 현실 인식과 자아성찰을 중심으로 이태준 자전소설의 성격과 유형을 현실 비판과 실천적 의지, 민족주의적 상향과 과거 지향성, 성찰과 자기정립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태준 자전소설에 나타난 인물의 현실 인식과 현실 대응하는 방식은 학습자의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태준 자전소설 중심으로 정체성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학습자는 소설 이해를 통해 정체성을 모색하고, 소설 이해의 내면화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 형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습자는 경험 주체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따라 이태준 자전소설을 읽어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으로 자전소설에 나타난 경험주체의 정체성을 경험하고, 이를 자신의 문제로 내면화하여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습자가 소설 세계를 경험하고 이를 자신의 삶과 연관 짓는 과정이다. 그리고 학습자가 소설 텍스트를 통해 형성된 정체성을 수용하고 성찰하는 과정으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자전소설 읽기를 정체성 형성과 관련하여 교육 내용으로 마련하고자 하였다. 정체성 형성과 자전소설 읽기 교육은 소설 교육은 학습자의 삶과 관련짓게 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내면화에 도달하는 교육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전소설을 대상으로 학습자가 정체성 문제를 경험하고, 정체성

을 재구성하며 자신의 정체성까지 나아가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3
3. 연구 방법	7
II. 정체성 형성과 자전소설 읽기 교육	10
1. 소설교육과 읽기	10
2. 자전소설과 정체성	12
3. 정체성 형성과 읽기	17
III. 이태준 자전소설 읽기와 교육적 효과	28
1. 이태준 자전소설의 성격과 유형	28
(1) 현실 비판과 실천적 의지	31
(2) 민족주의적 성향과 과거 지향성	39
(3) 성찰과 자기정립	54
2. 이태준 자전소설과 정체성 형성	72
(1) 텍스트의 정체성에 대한 경험	73
(2) 정체성 문제 내면화와 재구성	75
(3) 정체성의 수용과 성찰	78
IV. 결론	79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I. 서론

1. 연구 목적

무한한 정보로 인해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학습자들은 자아 정체성을 회복하고, 변화하는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교육은 학습자들이 자기 삶을 둘러싼 환경(세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자아 정체성 형성을 지향해야 한다.

학습자의 정체성 형성은 국어과 교육에서 문학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 있는 삶¹⁾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학습자의 가치 있는 삶은 자아 정체성 형성이 이루어져야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학 교육에서 학습자가 문학 작품을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삶에 대한 성찰과 자아 정체성 형성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소설의 허구성이 현재의 사실성을 약화시켜 소설을 읽는 독자에게 소설은 이미 사실이 아닌, ‘있음직한 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에 문학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 학습자가 보다 사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소설을 찾아야 한다. 이에 적합한 소설 텍스트로 자전소설이 있다.

자전소설은 작가의 개인적 체험을 소재로 서술하기에, 자전소설을 읽는 학습자는 자전소설에 등장하는 작중인물이 실제 작가와 동일한 인물이며, 작품 속의 일어난 사건이 ‘있음직한 일’이라기보다 ‘실제 있었던 일’로 생각한다. 이는 자전소설이 다른 소설에 비해 사실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학습자는 다른 소설에 등장하는 허구적인 인물들보다

1) 문학교육의 목적은 학습자로 하여금 미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세련시키고,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체험케 함으로써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있다.

실제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자전소설의 인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삶을 이해한다.

이렇게 자전소설은 작가의 자전적 요소가 가미되어 학습자로 하여금 소설의 현실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소설을 통한 작가의 감정과 소통이 보다 직접적이라는 점에서 소설 교육에 의미 있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실제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자전소설의 인물 혹은 작가의 삶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의 성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학습자가 자전소설 텍스트를 이해하는 동시에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삶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동안 소설 읽기는 학습자의 삶과 연결되지 못했다. 특히, 이태준 소설 같은 경우는 학습자의 삶과 동떨어진 일제 강점기 시대 상황과 해방이후의 체험을 바탕으로 창작되었기 때문에 학습자는 소설에 형상화된 내용을 자신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소설 읽기가 학습자의 삶과 연결되고, 학습자의 삶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정체성 형성을 위한 소설 읽기 교육이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텍스트로 자전소설을 선정하여 읽기 교육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이태준 자전소설은 암울한 일제 강점기 당시 주체의 정체성이 혼란한 상황에서 주체의 현실 대응 인식과 해방이후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 구조적으로 드러난다. 이에 따른 이태준 자전소설의 성격과 유형으로 현실 비판과 실천적 의지, 민족주의적 성형과 과거 지향성, 성찰과 자기정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이태준 자전소설에 드러나는 인물의 정체성은 당시 작가 이태준의 삶과도 관련이 있으며 이를 통해 당대 이태준의 삶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자서전을 활용한 읽기 교육의 성취기준을 실현한 것이다.

나아가 학습자는 혼란한 시대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한 이태준 자전소설의 경험 주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 형성으로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학습자가 소설 텍스트의 정체성을 경험하고, 이를 자신의 정체성 문제로 내면화하며, 자기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소설 텍스트를 통해 형성된 정체성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학습자는 이태준 자전소설을 정체성 형성 과정으로 읽고 이를 자신의 삶으로 전이시킴으로써, 정체성 문제를 경험 할 수 있다. 이는 나아가 학습자 자신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 이해하며,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본 논문은 자아 정체성과 자전소설 읽기 교육 연구를 위해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문학교육에서 정체성 형성과 관련하여 논의된 연구, 소설 교육의 텍스트로서의 자전소설 연구, 이태준 자전소설 연구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첫째, 문학교육에서 정체성 형성과 관련해 논의된 연구이다. 교육에서 정체성 문제가 다양한 측면에서 주목되어 온 만큼 ‘정체성’이란 용어도 교육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문학교육은 교육 일반의 이념 아래 정체성 형성을 의의와 목적으로 내걸고, 특히 문학 작품의 내용이 정체성 형성의 적합하고 효과적인 재료가 될 수 있음을 기대해 왔다. 이는 문학작품이 갖는 수사적 특징 때문이다.

문학 작품을 독자를 대상으로 말을 건네는 하나의 담화라고 할 때, 이 담화는 독자를 등장인물이나 화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것을 마치 자신이 겪고 있는 것처럼 대리경험 하도록 하고 이에 동일시 되도록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대리경험과 동일시는 문학작품을 읽는 사람에게 특정한 자임으로 느끼고 행동하도록 하면서 정체성 형성을 형성하도록 작용한다. 이 때 형성된 정체성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학이 독자를 보다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한다는 기대를 할 수 있다.

김대행²⁾은 “인간은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세계를 드러내고, 자기가 남들과 얼마만큼 같고 어느 정도로 다른 존재인지 드러낸다.”라고 하여 인간이 언어활동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구현한다고 보았다. 구인환³⁾은 문학적 언어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문학적 사고는 ‘상상력’이라는 초월적 성격의 사고를 포함하는데, 상상력은 인간이 환경과의 동화와 조절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함으로써 자아 상실로부터 자기 정체성의 회복을 돕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상력은 우한용⁴⁾은 “상징을 통해 구현”된다고 하여, 상징적 의미는 독자의 삶과 대비됨으로써 정체성 회복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이들 연구는 이야기가 정체성 형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정체성 형성을 위한 서사교육의 문학 교육적 의의를 시사해준다.

둘째, 소설 교육의 텍스트로서의 자전소설에 대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전소설의 교육적 가치를 논의한 연구, 자전소설을 발표한 작가

2)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3)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04.

4)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자전소설을 소설 교육의 텍스트로 적용하여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자전소설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그 방안을 검증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본 논문에서는 제시하지 않는다.

먼저 자전소설의 교육적 가치를 논의한 연구로 정래필⁵⁾은 자전소설의 양식적인 특징에 주목해 그 독서 행위의 성격을 살피면서 자전소설의 읽기 과정을 밝혔다. 또한 자전소설 읽기 과정에서 제시될 수 있는 읽기의 내용 요소들을 제시하고 자전소설을 읽기의 교육적 의미를 고찰했다. 선주원⁶⁾은 자전적 소설을 활용한 학습이 학습자들의 자아 정체성을 형성을 위한 교육이 된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자전적 소설에 대한 이해와 표현에 바탕을 둔 학습자의 자기 형성은 자전적 소설에 형상화된 서사적 정체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자전소설을 발표한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김연숙·이정희⁷⁾는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의 자아 정체성 혼란의 극복으로서의 자전적 글쓰기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문미령⁸⁾은 김명숙의 문학을 대상으로 삼아 1920년대 근대 여성의 자전적 글쓰기의 의의를 밝히고, 주체적인 여성으로서 세상과의 소통을 피하는 수단으로 자전적 글쓰기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채정은⁹⁾은 7차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학습자의 자아정체성 형성의 중요함을 반영하여 학습자의 자아 탐구와 형성을 위한 자전소설을 읽기·쓰기 통합 교육을 제시하여 갖는 교육

5) 정래필, 「자전소설의 읽기 방법 연구」, 《독서연구 제 18호》, 2007.

6) 선주원, 「자전적 소설 읽기와 소설교육- 서사적 정체성 구현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제 12호》, 한국독서학회, 2004.

7) 김연숙·이정희, 「여성의 자기발견의 서사, '자전적 글쓰기'- 박완서, 신경숙, 김형경, 권여선을 중심으로」, <여성과 사회> 8호, 창작과 비평사, 1997.

8) 문미령, 「김명숙 문학 연구- 근대 여성의 자전적 글쓰기 양상 및 의의」,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9) 채정은, 「자전소설의 읽기·쓰기 통합교육 지도 방안 연구-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먹었을까」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적 의의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소설 교육에서 자전소설 읽기 영역과 자전적 글쓰기 영역으로 나타나는데, 본 논문에서는 자전소설 읽기 영역에서 교육적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이태준 자전소설에 대한 연구이다. 이태준 단편 소설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에 비해 자전소설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이러한 이태준 자전소설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이태준이 창작활동을 하던 시대상황과 연관 지어 논의되고 있다.

김도희¹⁰⁾는 한 작가의 작품이 시대 상황과 결부되어 작품 경향과 문학적 가치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전제로, 이태준의 자전적 성격을 띤 단편 소설 「고향」과 장편 소설 「사상의 월야」를 살펴보았다. 이 두 작품이 식민 상황에서 이태준의 자전적 소설 변모 양상을 보이며 이를 통해 소설가로서 이태준이 시대 상황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살펴보고 미학적 우수성을 비교하고 있다. 진영복¹¹⁾은 1930년대 한국 근대소설의 자기 지시적 글쓰기 양상을 내성소설, 심경소설, 신변소설,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중 이태준 소설을 심경소설로 밝히고, 그의 문학적 지향은 선비 의식과 풍류, 즉 지사적 실천 의식과 자연과의 합일이라는 심경 사이에서 움직인다고 설명하였다. 이익성¹²⁾은 이태준의 자전적 소설은 자기의 자전적 사실을 소설 속에 드러내고 있다고 보았다. 이것을 시기적으로 초기, 중기, 후반기로 나누어 초기의 탈속적 저항, 일제치하 말기 작가의 고뇌의 흔적, 해방직후 사상적 변모로 제시하였다.

10) 김도희, 「식민 상황과 이태준 자전소설의 변모 양상- <故郷>, <思想의 月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 27집》, 2000.

11) 진영복, 「1930년대 한국 근대소설의 사(私)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12) 이익성, 「이태준 자전적 단편 소설의 구조」, 《개신어문연구 제 31호》, 2010.

기존의 이태준 자전소설 연구는 당대 현실과 연관되어 주체의 현실 대응 방식이 이태준의 삶의 방식과 동일하다고 본다. 이에 이태준 자전소설을 통해 주체의 정체성을 살펴 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주체가 느끼는 정체성의 혼란과 해방 이후 자아성찰을 통한 정체성 재정립 과정이 그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정체성 형성이라는 교육 목적과 자전소설이 담고 있는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에 주목하여 자전소설을 읽는 과정이 ‘정체성 형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체성 형성을 위한 소설 읽기 교육 방법을 이태준 자전소설에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본 논문은 자전소설이 학습자의 정체성 형성을 목표로 하는 소설 교육에 의미 있는 텍스트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자기 서술이라는 특성을 갖는 자전소설에서는 작중인물들을 통해 작가의 목소리가 드러난다. 이러한 자전소설에서 서술 주체의 정체성 형성은 작가의 정체성 형성과정도 연관 지을 수 있다. 나아가 자전소설을 읽는 학습자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소설 읽기 교육에서 정체성 형성의 관련성을 밝히고, 정체성 형성과 자전소설 읽기 교육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학습자가 자전소설 읽기를 통해 주체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이태준 자전소설에 형상화된 주체의 정체성 성격과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론에서는 연구 목적과 이태준 자전소설을 중심으로 정체성 형성을 위한 자전소설 읽기 교육을 위해 세 가지로 나누어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정체성 형성에 대한 연구, 학습자의 정체성 형성이라는 자전소설의 교육적 가치를 논의한 연구, 이태준 자전소설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

II장에서는 먼저, 소설교육과 읽기에 대해 살펴본다. 자기반성 혹은 자기 혁신의 속성을 지닌 소설을 가르친다는 것은 자아와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소설 읽기는 학습자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본다.

다음으로 자전소설과 정체성에 대해 살펴본다. 학습자는 소설을 읽고 이미 살아온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앞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즉, 소설에 등장한 인물의 정체성을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설에 드러난 정체성 형성 과정과 학습자의 정체성 형성 과정은 동일한 구조이다. 이에 학습자의 정체성 형성에 자전소설이 적합한 텍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자전소설과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이에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된 자전소설의 개념을 살펴보고, 본 논문에서의 자전소설의 개념을 정립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정체성 형성과 자전소설 읽기 교육을 살핀다. 우선, 소설에서 작중인물을 통해 드러나는 주체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선주원¹³⁾의 ‘작중인물의 정체성을 활용한 비판적 문식성 교육 내용’을 재정립하여 주체 형성 교육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정래필¹⁴⁾의 ‘자전소설 읽기 과정’을 제시하여, 자아 정체성 형성을 통한 자전소설의 교육적 가치를 살펴본다. 또한 7차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자서전을 통한 읽기·

13) 선주원, 「작중인물의 정체성을 활용한 비판적 문식성 교육 내용」, 『현대소설 교육론』, 역락, 2010.

14) 정래필, 「자전소설의 읽기 방법 연구」, 《독서연구 제 18호》, 2007.

쓰기 영역의 교육 목표와 내용을 통해 자전소설 교육이 학습자의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힌다.

III장에서는 이태준 자전소설 읽기와 교육적 효과를 살펴본다. 이태준 자전소설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이태준이 자전소설을 창작했던 당시 일제 강점기 시대 주체의 정체성 위기와 해방이후 자아성찰의 행위는 정체성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태준 자전소설은 당시 혼란한 시대상황을 보여주면서 정체성을 모색해 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정체성 형성과 자전소설 읽기 교육 연구 대상으로 이태준 자전소설을 선정하였다. 먼저, 이태준 자전소설의 성격과 유형을 나누고 II장에서 살펴본 자서전을 통한 교육 방법 읽기 영역에 따라 이태준 자전소설에서 주체의 정체성은 작가 이태준의 정체성 형성과정도 관련되어 있음을 파악하여 자전소설 읽기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자전소설 텍스트에서 주체의 정체성을 경험하고, 정체성 문제를 내면화하여 자기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텍스트를 통해 형성된 자신의 정체성을 수용하고 성찰하는 활동을 통해 정체성 형성과 자전소설 읽기 교육을 고찰해본다.

IV장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정체성 형성과 자전소설 읽기 교육, 그리고 이태준 자전소설의 교육적 효과 및 정체성 형성 과정을 정리한다. 이를 통해 국어 교육에서 학습자의 정체성 형성으로서 자전소설 읽기 교육이 갖는 가치를 밝히고 결론을 내리도록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자전소설을 텍스트로 한 소설 읽기 교육이 학습자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데 기대해 본다.

II. 정체성 형성과 자전소설 읽기 교육

1. 소설교육과 읽기

문학교육은 학습자가 문학 텍스트를 감상하고 자신의 체험을 내면화 하여 인격을 형성하고, 문학적 문화의 고양을 위한 바람직한 문학 환경을 조성하는 일, 문학의 재생산을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과 그 결과를 상승적 발전으로 이끌기 위한 모든 교육적 활동을 말한다.¹⁵⁾ 문학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문학텍스트와 친숙하게 접하게 되고 그것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 삶에 대한 확장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문학의 장르 중 소설은 자기반성 혹은 자기 혁신의 속성을 갖는다. 소설의 자기반성은 소설을 통한 삶의 반성이고, 다른 하나는 소설 자체의 형식이나 기법의 반성의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소설은 인간의 삶의 구도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장치이며, 그 장치 자체를 부단히 혁신해가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소설을 가르친다는 것은 자아와 환경의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다.

소설은 텍스트에 반영되는 치열한 삶, 인식의 지평을 추구하는 인간상의 창조를 통해 독자에게 교육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골드만(L. Goldmann)¹⁶⁾은 극복할 수 없는 단절의 근거인 구성적 대립과 소설적 형식이 존재할 수 있는 적절한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두 가지의 타락, 즉 주인공의 타락과 세계의 타락이 소설의 근본 성격임을 지적한 바 있다.

교사나 학습자들이 소설 텍스트를 읽는 것은 텍스트와 자신의 삶을 연계 짓는 것이다. 교사의 중개를 통해 소설 텍스트의 의미 소통에 참여하

15) 구인환 외, 『문학교수·학습방법론』. 삼지원, 1998.

16) L. 골드만, 조경숙 역, 『소설사회학을 위하여』, 청하, 1987.

는 학생들은 소설 내적인 삶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현실과의 치열한 연관을 맺게 된다. 학생들은 소설 텍스트가 지닌 문학성에 의해 세계 인식이나 삶의 총체성을 인해하고 내면화하는 데서 긍정적 수용과 상충을 동시에 체험한다.

소설은 학습자들의 의미 활동 참여가 적극적·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의미화가 가능하다. 소설은 인물, 사건, 공간 등의 형상과 이미지를 말로 그려 보여 줌으로써, 어떤 지적·정서적 경험, 사상 등을 추체험을 통해 즐기고 인식하며 깨닫게 한다. 이러한 소설의 허구적 이야기 일반은 기본적으로 시간 예술이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에 따라 요소들이 제시되며, 변화 및 구조화를 통해 추상적·초시간적 의미를 구성한다. 따라서 소설 읽기는 ‘순서’를 지배하는 시간과 ‘변화’의 시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로, 순서에 따른 소설 읽기는 ‘발견적 읽기’이며, 변화에 따른 소설 읽기는 ‘해석적 읽기’이다.¹⁷⁾

발견적 읽기란 사건을 비롯한 요소들을 서술의 통합적질서, 즉 스토리의 순서에 따라 소설을 읽는 것이다. 반면에 해석적 읽기는 서술의 계열적 질서, 즉 사건의 변화 및 구조화를 통해 소설의 의미를 파악하는 읽기이다. 발견적 읽기가 ‘사건’중심이라면, 해석적 읽기는 ‘사물’ 특히 작중인물을 중심으로 그것들의 의미를 해석하는 읽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학습자가 단순히 소설 텍스트의 내용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텍스트를 매개로 세계를 주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속에서 살아갈 존재로서의 지성과 감성을 기르는 일이다. 그러므로 학습자는 발견적 읽기와 해석적 읽기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17) 선주원·박기범, 『현대소설 교육론』, 역락, 2010.

2. 자전소설과 정체성

자전소설은 작가가 자신의 실제 경험을 소설로 재구성한 서사의 한 양식이다. 따라서 자전소설은 작가의 개인적 체험이 이야기의 소재가 되고, 여기에 작가의 상상력이 결합되어 창조되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진실을 추구한다.

작가의 직·간접 체험을 형상화한 소설은 대부분 자전적 글쓰기, 자전적 소설, 자전소설이란 용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의 차이는 연구자들에 의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사용되어 혼란을 주기도 하고, 자서전의 경우 문학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기도 한다. 이는 자전소설이 작가의 개인적 체험을 서술했기에, ‘보편적 진실성’이 부족하다는 일반적 편견 때문이다.

먼저 ‘자전적 글쓰기’란 문미령¹⁸⁾에 의해 “서술자가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그것이 사실이라는 전제에 입각하여 진술하며, 자신의 삶을 전체로서 성찰하고 그 의미를 추구하는 특징을 갖는 글쓰기 양식”이라 정의되었다. 이에 따라 자전적 성향을 지닌 다양한 글쓰기 장르들이 모두 ‘자전적 글쓰기’에 포함되어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이렇게 자전적 요소를 갖춘 다양한 글쓰기를 아우르고 있는 자전적 글쓰기는 소설 영역에서만 한정지어 사용할 수 없기에 자전소설과 구분되어 사용한다.

르죠편은 ‘자전적 소설(The Autobiographical novel)’을 독자가 텍스트 내에서 작중인물의 이야기가 작가의 전기적 행위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때문에 작가와 작중인물을 동일 인물로 생각하게 되는 허구의 텍스트로 본다.¹⁹⁾ 르죌에게 자전적 소설은 작가-서술자-작중인물의

18) 문미령, 앞의 논문.

19) 필립 르죌, 윤진 옮김, 『자서전의 규약』, 문학과지성사, 1998, 35쪽.

유사성이 지켜지며, 자서전보다 작가의 개인적인 진실, 내면의 개별적 진실을 내포할 수 있는 장르로 보았다. 여기서 유사성은 작중인물과 작가가 ‘어렴풋이 닮은 것 같은 단계에서부터, 그 둘이 그대로 빼어 닮은 분명한 유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 범위가 넓다. 이 유사성의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르죈은 ‘작가-서술자-작중인물’에 대응하는 제4의 용어인 ‘텍스트 외적인 지시 대상’으로 ‘전형 혹은 모델’- 유사성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인다. 이 유사성은 텍스트의 외적인 현실과의 비교를 통해 텍스트가 제시하는 정보와 작가의 창작활동과 삶에서 추구하고 있는 의미에 기반을 둔다.²⁰⁾ 이에 자전적 소설을 읽는 독자는 작가와 그의 삶에 대한 정보 그리고 작가가 다른 작품에서 일관적으로 추구해온 텍스트의 의미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자전적 소설’에 대한 또 다른 정의들로 한용환²¹⁾은 ‘자전적 소설’을 “한 개인의 삶을 탐색하는 전기가 허구적 소설 개념과 결합하여 발생한 소설 유형”으로 지칭한다. 이익성²²⁾은 ‘자전적 소설’이라고 하여, 작가의 주변적인 이야기를 소재로 하면서도 작가의 자전적인 내용과 일치되는 것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선주원²³⁾은 “자전적 소설이란 서사 주체가 경험한 삶의 장면들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연쇄적으로 나열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필요로 하는 장르”로 정의하였다. 저자의 경험이 담겨있다는 자전적 소설의 특징을 중요시 한 정의로 작가가 경험의 재구성 과정은 자아 정체성 탐색의 과정과 맞닿아 있으며 이것의 결과가 자전적 소설에 반영된 것으로 자전적 소설을 자아 정체성 탐색의 과정과 연관 지어 정의하였다.

‘자전소설’은 작가가 소설의 서문에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밝히기도 하

20) 정래필, 앞의 논문, 228쪽 재인용.

21) 한용환, 『소설학 사전』, (서울: 고려원 1992), 376쪽.

22) 이익성, 「“사상의 월야”와 자전적 소설의 의미」, 『한국 현대소설비평론』, 태학사, 2002.

23) 선주원, 앞의 논문.

고, 소설 텍스트 내 작가의 전기적인 사실과 연관하여 독자가 그 작품을 자전적인 이야기로 판단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설의 허구적인 장르적 속성 때문에 자전소설은 작가와 화자, 화자의 작중인물의 동일성문제를 가진다. 쥘레트는 작가와 화자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 이야기’와 ‘허구 이야기’를 구분한다. 그리고 작가, 화자, 작중인물이 동일임에도 불구하고 허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르를 ‘자전적 허구’라고 하였는데 이는 본 논문에서 ‘자전소설’ 개념과 유사하다.

쥘레트는 이야기의 허구성은 스토리상에서도 주어지지만 그보다는 서술 자체의 층위에서 주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쥘레트는 ‘저자=화자’를 기준으로 사실 이야기와 허구 이야기를 이야기 했다.²⁴⁾ 이 과정에서 자전소설은 일반적으로 자기서술 유형으로 1인칭 동종 화자와 3인칭 이중 화자를 서사 주체로 형상화 한다.

1인칭 동종 화자에 의한 자전소설은 서사 주체의 명시적인 태도를 드러내면서, 작가와 작중인물, 그리고 서사 주체(화자)의 동일성을 전제한다. 서사 주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이야기를 전개하는 고전적인 형태의 자전소설이다. 이러한 형태의 자전적 소설에서는 경험적 자아와 서술적 자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경험적 자아의 과거 시간과 서술적 자아의 현재 시간의 간격에서 두 자아 사이에는 분리가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서술적 자아가 주관적인 자아 표출만 서술할 경우, 서사 주체의 자아 정체성은 형성되지 못하고, 이러한 서술은 독자에게도 의

24) 1) 사실 이야기(‘저자=화자’인 경우)

- (1) ‘저자=화자=작중인물’인 경우: 자서전
- (2) ‘저자=화자’이면서 ‘화자≠작중인물’인 경우: 역사 이야기

2) 허구 이야기(‘저자≠화자’인 경우)

- (1) ‘저자≠화자’이고 ‘저자≠작중인물’이면서, ‘화자=작중인물’인 경우: 동종 화자의 서사
 - (2) ‘저자≠화자’이고 ‘저자≠작중인물’이면서, ‘화자≠작중인물’인 경우: 이중 화자의 서사
 - (3) ‘저자≠화자’이고 ‘저자=작중인물’이면서, ‘화자≠작중인물’인 경우: 3인칭 자서전
- 선주원, 앞의 논문, 재인용.

미가 없다. 이에 서술적 자아는 자아 및 타자 형성을 위해 경험적 자아와 대화를 해야 한다. 이러한 대화는 자기를 대상화하고 거리두기에 적절하다. 따라서 1인칭 동종 화자에 의한 자전적 소설을 지도할 경우 학습자에게 경험적 자아와 서술적 자아의 관계를 파악하도록 도와야 한다.

반면 3인칭 이중 화자에 의한 자전적 소설은 서술자가 특정한 인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자전적 소설은 ‘작가-화자-작중인물’의 동일성을 유추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 독자는 서술자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다. 3인칭 인물의 내적 고백과 진실을 통해 서사 주체는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적 서술 행위를 직접 하기보다는 이중 화자를 통해 자신의 삶을 둘러싼 ‘진실과 허구’를 해명한다. 이에 3인칭 화자에 의한 상상적 자기 고백도 자전적 서사의 한 방식으로 본다. 1인칭 동종 화자가 한 개인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는 것과 달리 3인칭 이중 화자는 자신의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타자를 통해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자전소설’에 대한 정의로 강진호²⁵⁾는 자전소설은 작중의 화자와 인물의 형상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일반 허구(fiction)와는 달리 자전소설에는 작가의 개인사가 비교적 충실하게 재현된다고 본다. 그래서 자전소설은 소설에 나타난 작가의 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송윤권²⁶⁾은 자전소설의 작가와 작중인물은 ‘그대로 빼어 닮은 단계’이며, 작가-서술자-작중인물의 동일성이 서술 층위에서 지켜지는 소설을 자전소설이라고 하였다.

25) 자전소설에는 작가의 현실에 대한 견해와 내면심리, 거기에 작용한 사회적 압력과 작가의 무의식적 검열 양상 등이 사실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특히, 작중의 ‘화자(話者)’와 ‘인물의 형상’에는 현실에 대한 작가의 견해와 입장, 가치와 신념 등이 한층 구체적으로 투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 강진호, 「반공주의와 자전소설의 형식- 박완서론」, 『현대소설사와 근대성의 아포리아』, 소명출판, 2004.

26) 송윤권, 「박완서 자전소설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앞의 연구들에서 확인하였듯이 ‘자전적 소설’과 ‘자전소설’은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연구자들에 의해 ‘자전적 소설’ 또는 ‘자전소설’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자전적 소설과 자전소설을 구분하지 않고 자전소설로 통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자아 정체성 형성을 위한 소설 교육의 텍스트로서 이들의 교육적 가치를 논하는데 자전소설과 자전적 소설의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기 서술이라는 자전소설의 고백적 성향은 학습자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준다. 학습자가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고백적 행위가 갖는 진정성을 함께 경험하게 되어 이를 토대로 자기 정체성 구현을 위한 하나의 매개”²⁷⁾로 삼게 된다. 작가가 보여주는 진정성은 학습자의 자아 성찰의 계기가 되며 새로운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정체성 형성’은 이야기의 기능 가운데 하나이며 이야기를 하는 동기는 정체성 위기와 관련된다.²⁸⁾ 작가는 세계가 문제로 인식될 때 이를 소설로 형상화 한다. 소설 창작의 근원적인 출발은 주체와 세계의 불화, 즉 갈등 관계를 인식하는 일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문제적 사태로 인식된 경험 세계는 작가가 소설을 통해 대안 세계를 모색하게끔 하는 창작 동기가 된다. 이러한 대안 세계의 모색은 작가가 현실을 성찰하는 한 방식으로, 현실에 대한 성찰의 과정에서 주체와 세계의 관계를 재검토하는 것이다.²⁹⁾

27) 선주원, 앞의 논문, 2004.

28) 임경순, 「자아 정체성 형성과 이야기 교육」, 『문학교육학』, 2000.

29) 김근호, 「허구 서사 창작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3. 정체성 형성과 읽기

소설은 인간의 경험을 형상화하되, 그 경험에 대한 사유와 태도를 담고 있으므로 소설을 읽는 것은 정체성 형성과 관련이 있다. 이야기를 통해서 의미 있는 자기 성찰과 자기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구인환³⁰⁾은 “문학작품을 읽고 있는 사람은, 전체로서의 인간의 입장에 선 하나의 입장으로만 존재하게 된다. 이것을 자기 동일성 회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상상력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의식을 최대한 확장하며 상실된 근원적 감각, 환경과 자기는 동일성이라고 하는 감각을 회복한다. 이것은 분열된 자아의 회복을 감당할 수 있는 문학 고유의 기능이기도 하다”라고 하여 정체성 형성이 자기 내면을 파고드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나 개별자로서의 앎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간 존재로서 자기에 대한 총체적 앎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다.

자기 내면으로의 개별적 이해를 막기 위해서는 타자를 통한 자기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서사 읽기-인물 이해를 통한 자기 이해는 타자를 읽으며 동시에 스스로를 읽는 독자가 되게 한다. 이것은 소설에 드러난 정체성 형성 과정을 통해, 독자 자신의 정체성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설에 형상화된 주체의 정체성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 돌아보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소설의 작중인물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참조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학습자는 소설에서 보여주는 정체성 형성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성찰할 수 있다.

소설 읽기의 과정을 통해서 주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려면 그 전제로서 읽기 과정 자체가 유의미하고 성실한 행위가 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인물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작중인물과 동일시되

30)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04.

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육에서 지향하는 수준 높은 정체성 형성은 능동성과 인식의 확대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무의식적 동일시, 무비판적 수용이 아닌, 깨어있는 의식의 성찰과 자아의 성찰을 의미 한다. 따라서 소설 읽기를 통한 정체성 형성의 목표는 이야기를 통해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가치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³¹⁾

소설 텍스트 이해를 통한 “자기 이해”는 주체가 “텍스트의 세계”를 “자기화”함으로써 텍스트 해석을 자기 이해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이 자기화는 해석한의 첫 범주인 거리 두기, 두 번째 범주인 구조를 통한 대상화, 세 번째 범주인 텍스트 세계를 거친 텍스트 해석의 마지막 작업이다. 따라서 텍스트 세계를 자기화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자기 이해는, 그 이해 활동에 자신의 의도와 주관성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아를 오히려 거리 두기 하는 활동이다.³²⁾ 따라서 소설을 읽는 주체는 기존의 경험들과 다른 경험을 체험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더욱 폭넓은 자기를 수용한다. 여기서 “자기 이해”는 곧 “정체성 형성”이 된다.

이렇게 학습자는 “자기 이해”를 위해 소설에 형상화된 주체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에 선주원은 비판적 문식성³³⁾을 활용한 작중인물의 정체성을 이해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작중인물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부터 학습자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

31) 우한용 외, 『서사교육론』, 동아시아, 2001.

32) 최경미, 「정체성 형성을 위한 소설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33) 비판적 문식성에 의한 소설 읽기는 학습자가 비판적 태도를 갖고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자기화하여 자기 성찰을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학습자가 자신의 상황 맥락과 연관 지어 텍스트가 갖는 의미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텍스트에 형상화된 담론 구조가 삶의 본질을 얼마나 충실하게 형상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구조는 학생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등을 평가하도록 한다. 특히 작중인물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대한 비판적 이해에 의해 학습자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을 하게 한다.

정까지 비판적 문식성의 원리에 따라 여섯 가지 활동을 구안한 것이다. 작중인물의 기존 자아 정체성에 위기를 초래하는 사건 파악하기, 작중인물의 현실 대응방식 파악하기, 작중인물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과정 파악하기, 작중인물의 정체성에 대해 비판하기, 작중인물의 정체성과 자신의 정체성 관련짓기, 자아 성찰을 통한 새로운 정체성 형성하기이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⁴⁾

1) 작중인물의 기존 자아 정체성에 위기를 초래하는 사건 파악하기

일반적으로 작중인물의 정체성은 작중인물이 경험한 사건들을 통해 구체화 된다. 따라서 작중인물을 학습할 때, 학습자는 소설 텍스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건들을 다시 읽음으로써, 작중인물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분명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소설을 보다 자세하게 읽고, 텍스트와의 소통을 구체적으로 수행한다. 이 단계의 목적은 학습자가 소설 텍스트를 자세하게 분석함으로써 작중인물이 경험한 중요 사건과 정체성 형성이 갖는 연관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소설 텍스트의 의미, 작중인물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보다 분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2) 작중인물의 현실 대응방식 파악하기

작중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에 드러나는 현실 대응 방식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작품의 줄거리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어떤 생각과 갈등 가운데 처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작중인물의 현실 대

34) 선주원, 「작중인물의 정체성을 활용한 비판적 문식성 교육 내용」, 앞의 책, 2010, 410~414쪽.

응 방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3) 작중인물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과정 파악하기

작중인물의 혼란과 갈등 이면에 있는 정체성 형성 과정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작중인물에게 닥치는 시련이나 갈등은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 이상임을 생각해 보도록 돕는 것이다. 이는 갈등이나 혼란이 단순한 일탈이 아닌,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며 그런 의미에서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학습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한 갈등과 혼란이 실상은 새로운 정체성 형성에서 필수적인 과정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중인물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4) 작중인물의 정체성에 대해 비판하기

작중인물의 정체성 형성에 변화를 주는 사건들과 그 의미에 대해 인식을 통해 정체성 형성 과정을 학습자가 함께 읽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가 작중인물의 삶을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야 가능한 것으로, 소설 읽기의 핵심은 작중인물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작중인물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주목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작중인물의 정체성에 대한 비판을 하고, 이 과정에서 삶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 작중인물의 정체성과 자신의 정체성 관련짓기

학습자는 작중인물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를 자신의 정체성과 연관 짓는 소설 읽기를 하게 된다. 작중인물에 대한 이해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를 촉발하기 때문이다. 작중인물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자신의 정체성 형성 과정과 연관 짓는 가운데, 학습자들은 자신의 삶이 놓여있는 시공간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아성찰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학습자는 작중인물이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경험했던 사건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건들이 작중인물의 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가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인이 된 화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작중인물의 사건들에 대한 기억들을 일부러 반추하는 이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6) 자아 성찰을 통한 새로운 정체성 형성하기

작중인물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자신의 정체성 형성 과정과 연관 지어 읽는 소설 읽기는 학습자로 하여금 자아 성찰을 할 수 있게 한다. 학습자는 소설 읽기를 삶의 매 순간에 경험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사건들에 대한 경험들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하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설 읽기 경험은 학습자가 작중인물에 대한 이해를 자신의 관점에서 새롭게 의미화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활동은 소설의 작중인물의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학습자가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가 소설 텍스트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해도 이를 자신의

정체성 형성까지 나아간다는 추상적인 과정을 구체화 시켰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선주원은 제시한 여섯 가지 활동을 직접 소설 작품에 적용하여 설명하였기에, 각 단계에 대한 이해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행 가능성을 용이하게 하였다.

소설 이해를 통해 정체성 형성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텍스트의 구조적 이해와 관계를 갖는다. 소설을 읽는 ‘나’가 일방적으로 텍스트의 세계에 빠져 들거나, ‘나’의 주관성에 의해 텍스트 세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려면, 텍스트 이해를 통해 자기화가 ‘거리두기’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이는 곧 텍스트를 객관화하는 것이다.

이는 소설의 구조가 학습자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작품의 구조나 내적 형식은 소설 읽기를 통한 자아 정체성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설 교육에서 소설 텍스트 감상은 학습자의 과거의 경험에 따라 현재, 미래의 경험에 영향을 준다. 김동환³⁵⁾에 의하면 “문학 작품은 높은 수준의 전략을 통해 생산된 소통 텍스트이다. 작가라는 메시지 생산자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낸 텍스트” 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전소설은 작가의 개인적인 삶과 맞닿아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자신의 존재론적 측면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경험이 글의 중심 제재로 선정된다. 작가는 자신의 경험 중 특정한 목적 아래 선택된 실제 겪은 경험을 토대로 소설의 양식을 빌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작가의 갈등상황과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을 담은 소설의 경우 학습자의 자아 정체성 형성을 위한 의미 있는 학습이 될 수 있다.

서술적 자아와 경험적 자아의 대화를 통해 이야기가 진행되는 자전소설을 독자는 서술적 자아와 경험적 자아의 대화적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35) 김동환, 「문학과 읽기 영역의 통합 교육방안- 소설을 중심으로」, 《교과교육 내용개선을 위한 워크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서술적 자아가 경험적 자아의 생각이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서술적 자아가 경험적 자아와 동일한 의견을 유지한다면 독자는 작가의 입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자아가 갈등을 하고 있다면 그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면서, 작가가 과거의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과 그것이 작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자전소설을 읽는 독자는 텍스트의 서술적 자아와 경험적 자아, 작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래필은 자전소설 읽기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구안하여 제시하였다.³⁶⁾

1. 경험 주체³⁷⁾를 통해 고백의 내용 읽기

- 서술 주체에 의해 제시된 경험 주체의 말과 행동을 분석한다.
-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 경험 주체가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를 이해한다.
- 경험 주체가 제시하는 고백의 내용을 확인한다.

자전소설은 이야기하는 상황과 이야기 되는 상황이 동시에 드러난다. 고백의 내용은 경험 주체의 말과 행동을 통해 텍스트에 드러난다. 따라서 독자는 이야기된 체험 내의 경험 주체에 주목하면서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 발견할 필요가 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명확해 진다면 서술 주체가 과거의 기억에 대해 어떤 입장과 태도를 지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2. 경험 주체에 대한 거리 유지 방식 읽기

36) 정래필(2007), 앞의 논문, 233~244쪽.

37) 정래필의 논문에서 언급된 서술 주체와 경험 주체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서술적 자아와 경험적 자아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본다.

- 경험 주체에 대한 서술 주체의 평가에 대해 이해한다.
- 서술 주체가 지향하는 삶의 의미에 대해 추론한다.

경험 주체의 말과 행동을 통해 고백의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독자는 이 경험 주체에 대한 서술 주체의 태도나 입장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전소설에서 서술 주체는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어떻게 사건을 체험했는지를 재현하고, 동시에 그 사건이 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전달해준다. 즉 서술 주체는 과거 사건의 개요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전달한다. 따라서 독자는 경험 주체의 말과 행동에 대한 서술 주체의 평가에 주목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서술 주체가 지향하는 삶의 의미에 대해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3. 서술 주체의 화해 과정 읽기

- 경험 주체와 화해하는 서술 주체의 태도를 이해한다.
- 현재적 입장에서 서술 주체가 고백하는 내용을 확인한다.
- 과거의 기억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서술 주체의 감정적인 변화를 이해한다.
- 서술 주체가 고백한 내용이 작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한다.

서술 주체가 과거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은 그 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기억은 현재의 주체에 의해 재구성될 때 의미가 있다. 기억의 재구성을 통해 주체는 과거의 자신과 화해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갖는다. 따라서 독자는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는 서술 주체의 태도에 주목해야 한다. 자신과 화해하는 과정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주체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과정이다.

르죠편은 자전소설을 서술 행위를 통해 서사 주체가 자신의 기억을 재구성하고 자아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따라서 자전소설에 구현된 과거의 기억은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문맥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된다.³⁸⁾ 이렇게 자전소설에 구현된 서사 주체의 기억은 독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기에, 자전소설에 대한 이해는 독자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자전소설을 읽는 독자는 텍스트를 통해 작가의 삶의 정체성을 탐색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전소설에 형상화된 서사주체는 자기를 타자의 자기반성, 자기발견, 자기창조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자아 정체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자전소설은 소설 교육의 핵심인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성찰 및 새로운 주체 형성을 실현할 수 있다.

자전소설을 읽는 학습자가 작가의 체험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주체의 경험 세계에 대한 인식과 반성을 통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학습자가 볼 수 있는 것은 실제 작가의 정체성 형성 과정이라기보다는 소설에 형상화된 정체성 문제의 전개과정이다.

자전소설에서 경험 세계에 대한 반성과 대응은 구체적인 형상을 지닌 인물을 통해서 드러난다. 소설은 인물에 대한 이야기이며, 특히 주인공은 작가가 소설 속 경험의 주체로 내세운 인물이다. 따라서 정체성 위기의 문제제기는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면서 이루어지며, 새로운 정체성의 모색은 인물의 인식과 행동을 통해 전개된다.

갈등 상황 속에 놓인 인물은 자아와 세계에 대한 반성적 인식을 보여

38) 필립 르죌, 앞의 책.

준다. 유튜브에 의해 살펴보았듯이, 자전소설은 서술 시점이 1인칭 이거나, 3인칭으로 인물에게 초점화 되어 그의 내면 의식과 정서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자기 인식은 각 상황에 대한 의식의 혼란과 이를 탐구하려는 주체의 반성적 인식을 동시에 보여준다.

최근 인터넷 매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이에 공감하며 또 다른 주체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활동은 자전적 글쓰기와 자전소설 읽는 과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개정된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자서전을 통한 교육방법이 등장한다. 7차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문학교육 목표는 ‘문학적 문화능력을 고양시켜 창조적인 자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교육 내용 또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자전소설 교육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학습자의 자아 정체성 형성’으로 문학의 전체적인 목표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자전소설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 삶의 자세와 인생에 대한 성찰을 서술한 자서전

성취수준	내용 요소의 예
(4) 자서전을 읽고 글쓴이의 삶을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서전의 특성 이해하기 ○ 글쓴이의 삶의 자세 추론하기 ○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글쓴이의 삶 이해하기

【8학년 읽기 영역】 담화 수준과 범위

<담화의 수준과 범위>

- 자신의 삶의 궤적과 그에 대한 생각을 기록한 자서전

성취수준	내용 요소의 예
(5)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이 잘 드러나게 자서전을 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서전의 구성 및 표현의 특징 이해하기 ○ 시간 순서에 따라 쓸 내용 정리하기 ○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표현하기 ○ 글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 이해하기

【8학년 쓰기 영역】 담화 수준과 범위

위의 내용은 【8학년 읽기 영역】 과 【8학년 쓰기 영역】 39)의 내용으로 자서전 학습과 관련되어 있다. 자서전은 서술자의 진솔한 삶을 바탕으로 전하고 싶은 인생의 이야기를 서술한 것이다. 이는 인생의 과도기적 시기를 거치고 있는 중학생 학습자의 인격형성에 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자서전을 읽고 개인을 넘어 사회에 대한 이해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학습자의 바람직한 성장에 기여하는 글을 접하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활동은 그동안 지나쳐왔던 가치 있는 삶의 발견과 이를 통한 개인의 성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전소설 또한 작가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 다른 이에게 전할 만한 가치 있는 경험들을 재구성하여 놓은 문학이다. 따라서 위의 자서전 교육은 자전소설 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며, 성취 기준과 내용 면에서 서로 지향하는 바가 동일하다고 본다. 이러한 자전소설은 다른 소설에 비해 작가의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특징이 있어 학습자가 삶에 대한 작가의 태도와 시대적 상황에 따른 작가의 삶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고등학교 문학(상)- 교사용 지도서』 40)에서는 자전소설이 자신의 경

39)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00호, 교육인적자원부, 2007.

40) 홍신선, 박종성, 김강태, 『문학(상) 교사용지도서』, (주) 천재교육, 2002.

험이나 과거의 기억을 나열하거나 변명을 늘어놓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주위에서 벌어졌던 이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자신의 주변 인물이나 사물로서, 자신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살펴 볼만한 상관물이 의탁할 대상으로 선택되어야 하며, 자신의 삶의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게 한 계기들이 사건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 이에 실제 교육 현장에서 자전소설 읽기는 작가의 자전적인 경험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수립하기 위해 읽기·쓰기 통합 교육을 지향해야겠지만, 본 논문은 자전소설 읽기 교육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쓰기 교육이 이루어지기 전에 읽기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앞의 자서전 학습에서도 살펴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삶이 잘 드러나게 자서전’을 쓰려면 자서전이 어떻게 쓰였는지 기존의 자서전에 대한 읽기가 우선 학습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체가 형성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한 자전소설 읽기 학습이 학습자의 정체성 형성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Ⅲ. 이태준 자전소설 읽기와 교육적 효과

1. 이태준 자전소설의 성격과 유형

이태준 단편 소설에는 작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과 작가의 체험이 투영되어 있더라도 작가가 대상화한 인물에 다소간의 거리를 갖고 공감적 시선을 던지고 있는 작품이 있다. 이들은 모두 자기 서술이라는 자전소설의 양식을 가지지만, 전자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

가 자신이 중심인물이 되어 자기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후자는 1인칭 관찰자의 시점으로 중심인물이 ‘내’가 아닌 사회에 소외된 인물들의 이야기를 ‘나’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을 포함하여 이태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그의 전기적 행적이 드러난 작품을 이태준 자전소설로 본다. 이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온실화초」(1929), 「은희 부처」, 「결혼」(1931), 「고향」(1931), 「실락원 이야기」(1932), 「점경」, 「장마」(1936), 「쾌강냉」(1938), 「토끼 이야기」(1941), 「사냥」, 「무연」(1943), 「해방전후」 등이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이 되는 현실 인식 체계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띄고 있어야 하는데, 혼란한 사회에서는 안정성이 위협을 받고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온다. 이에 이태준 자전소설이 창작된 당시 일제의 탄압과 해방 후까지의 사회적 변화는 삶에 혼란을 가져올 만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일제 강압 속에서 미래에 대한 전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이태준은 자전소설을 통해 정체성 문제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그로써 인간과 삶에 대한 통찰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이태준 자전소설에서 자아의 형성과 관련된 논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허병식⁴¹⁾은 자서전의 공간에서 주체의 형성을 말하는 것은 현실의 격동을 헤쳐 나가고자 하는 의지의 소산으로 보았다. 이태준 자전소설에서도 작가는 소설 속 현실을 문제화하면서 형성하고자 하는 주체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태준은 자전적인 작품을 통해 정체성의 서사적 형성을 문제화하고 있다. 그는 이 작품들에서 작중인물을 통해 ‘진정한 자기’를 창출해내고, 독자들이 이러한 인물들을 받아들여주길 원하다. 여기서 독자는

41) 허병식, 「이태준과 교양의 형성」, 상허학회 편, 앞의 책, 248~249쪽.

이태준이 창출해낸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작중인물의 정체성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 작중인물의 의식과 행동에서 드러난다. 이태준 자전소설의 작중인물에게 보이는 현실 비판과 실천적 의지, 민족주의적 성향과 과거 지향, 자기반성과 자기 성찰적 특징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태준 자전소설은 주체와 현실의 대립이 소설 창작의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과 경험 세계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정체성의 모색 및 형성 과정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정체성 문제를 경험하기에 적합한 제재가 된다.

이태준 자전소설의 인물은 현실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비판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작품에 따라 주체가 현실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비판하는 유형과 이를 과거지향 혹은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해결하려는 유형과 반성과 자기 성찰적 특징으로 나타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는 유형이 있지만, 이는 모두 당대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 정체성과 경험 세계를 형상화 하고 있다.

이태준 자전소설에서 인물이 존재하는 상황은 곧 삶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며, 구체적으로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서 해방에 이르기까지 현실을 전면적으로 드러낸다. 따라서 인물들이 놓인 공간은 곧 당대의 사회적 현실을 드러낸다. 이태준 자전소설은 인물과 시대의 갈등 상황을 통해 현실이 개인의 삶을 억압하는 문제 상황을 드러낸다.

이태준 자전소설에 드러나는 주체의 의식 혼란과 반성적 인식의 대상으로 반성적 주체는 당시 현실과 자아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전개하고,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현실 대응 방식을 재정립하게 한다. 이태준의 자전소설 「해방전후」⁴²⁾에서는 작중인물 ‘현’이 해방 전 일제 강

점기 시대 소극적인 실천적 행위와 해방 후 현실을 인식하고 과거의 소극적 행위를 반성하고 적극적 실천적 행위를 보여주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태준 자전소설에서는 내면적 세계에서 형상화되는 의식을 통해 현실을 부정함으로써 과거 지향적 태도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는 「장마」에서 작가 자신으로 분명해 보이는 ‘나’가 관찰자의 시각에서, 당시 사회 현실 비판과 동시에 피상적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를 어릴 적 고향 친구들에게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한다.

이렇게 정체성 문제에 대한 이태준 자전소설의 인식적 대응은 인물의 인식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지만, 결말 부분에서 작가의 주제적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작품의 결말이 갈등의 미해결로 끝난다면, 결국 정체성이 형성되지 못한 원인이 작가의 의도가 된다. 또한 작품의 결말이 인물의 인식 전환으로 끝난다면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정체성 문제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태준 자전소설의 성격과 유형은 당대 현실에 대한 인식적 대응에 따라 비판의식과 실천적 의지, 민족주의적 성향, 반성과 자기 성찰적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현실 비판과 실천적 의지

주체는 현실 상황에 위기를 통해 현실에 대한 부조리를 인식한다. 그리고 자신과 현실의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태도를 정립한다. 이는 위기를 불러일으킨 경험 세계에 대해 인식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

42) 「해방전후」를 집필한 이후 이태준 작품 경향이 좌파계열의 경향과 문학으로 전환된 점에서 교육에 적합한 작품이라고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인물의 정체성 형성 과정이 드러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이 작품을 수록하였다.

이다. 해결 전망을 제시하기 힘들었던 일제 강점기 현실 상황에서 실제로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전망까지 나아가기 힘들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대응 방식까지는 볼 수 있으며, 그 대응 방식은 현실의 폭력과 억압의 힘이 주체에 비해 극도로 큰 상황에서 주체가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면적으로 드러난 일제 강점기 억압의 체험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주체적인 의지와는 무관하게 운명의 힘을 감지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대로 삶에 대한 새로운 정의로 고정되기도 한다.

이태준 자전소설에서 인물이 당대 현실 상황의 부조리를 인식하지만 결국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현실을 인정하게 되는 작품으로 「고향」이 있다.

이태준은 1924년 휘문고보 동맹휴학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퇴학을 당한 후, 친구의 김연만의 도움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간다. 그리고 그는 1927년 상지대학을 중퇴하고 귀국하는데, 「고향」은 그 시기⁴³⁾의 정황을 재현한 이태준의 자전소설이다.

초기 이태준의 자전소설이기도 한 「고향」의 작중인물 김윤건은 동경 유학에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나라를 위해 뜻있는 일을 하겠다는 포부와 희망을 가지고 귀국한다. 그러나 그는 귀국길에서부터 직면하는 조선의 현실에 우울해 한다. 조선에 돌아온 김윤건은 현실과 타협하며 자기 안위와 이익만을 밝히는 동포들에게 분노를 느낀다. 이에 김윤건은 자신

43) - 1926 (23세) 4월 동경 상지(上智)대학 예과에 입학.

신문, 우유 배달 등을 하며 매우 궁핍한 생활 속에 나도향 등과 교우.

- 1927 (24세) 11월 상지대학을 중퇴하고 귀국함.

각 신문사와 모교를 방문하여 일자리를 구하나 뜻을 이루지 못함.

- 민중환, 「이태준 작가 연보」, 『이태준과 현대소설사』, 깊은샘, 2004, 401쪽 발췌.

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곳곳한 의지를 보인다. 그러나 자신을 받아 주지 않는 현실에 절망하게 된다. 그리고는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다가 경찰 신세를 지게 된다. 결국 김운건은 조선의 현실에 좌절하면서 점차 일제 강점기 상황과 지식인이 세속화된 시대를 인정하게 된다. 결국 자신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을 감지한 주체는 그대로, 당시 일제 강점기 시대 좌절하는 지식인으로 자신의 삶을 고정하게 된다. 이는 현실을 인식적으로 대응하는 주체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구조화한 것이다.

“나의 고향은 어디냐?”

운건은 심사가 울적할 때마다 보던 책을 다다미 위에 집어 내던지고 그리운 곳을 툫아 보곤 하였다.

함경북도 배기미나, 서울이나, 그저 막연하게 조선 땅이나, 그러면 배기미나 서울이나 철원에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아무도 없다. 배기미 같지도 않다. 서울도 철원도 아닌 것 같다.

그러나 그는 이 말 끝에 연달아 “조선 땅이 아니다”라는 말은 해본 적이 없었다.

“어서 졸업하고 조선 가자.”

이 일념에서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남 다 자는 새벽 거리를 뛰 어다니며 어떤 때는 신문을 돌리고, 어떤 때는 우유 구루마를 끌기에 육 년 동안 잔등에 채찍질을 하여 왔었다.

...(중략)...

‘내 고향은 철원도 아니요, 매기미도 아니요, 서울도 아니다. 부산 부두에 발을 올려 딛는 때부터 내 고향이다. 내 고향은 나에겐 편안히 쉴 자리를 줄 리가 없다.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피할 나이도 아니다. 그곳에는 여러 동무들이 있을 것이다. 어서 신들메를 그르지 말고 그

대로 뛰어 나오시오. 당신만은 몸을 사리고 저편에 붙지 말고 용감하게 우리 속에 와 끼여 주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힘차고 씩씩한 친구들이 나를 맞아 줄 것이다. 오! 어서 닥뜨려다오!⁴⁴⁾

특별한 고향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조선에 도착하면 나라 독립을 위해 친구들과 함께 희생하고 싸울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동경을 떠나면서부터 김윤건은 현실 상황을 인식하고는 이내 실망한다. W대학 조선 유학생으로 ××은행 본점으로 취직한 돈 많은 청년이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에 비위가 상한다. 지식인으로서 독립을 위해 앞장서야 할 인물이 제 안위만을 추구하는 모습에 울분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선실 안에서는 조선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조선의 현실에 마주하게 된다.

“돈들 많이 벌어 가지고 오시오?”

윤건을 울분한 심사를 가라앉혀 가지고 배가 떠난 지 한참 만에 옆에 누운 조선 노동자와 말을 건네었다.

“돈이 뭐요. 벌이가 좋으면 나가겠소.”

“조선보다야 돈이 흔하지 않소?”

“그 사람네 흔한 게 상관 있나요.”

“그래, 노형은 무슨 일을 하셨소?”

“길에 산스이했지요. 일본 와서 큰 길에 물만 몇 달 동안 부려주고 가요.”

“하루 얼마씩이나 받으셨소?”

“침에는 조선 사람도 일 원 이십 전씩은 주었다는데 내가 갔을 때는

44) 이태준, 「고향」, 『해강냉(외)』, 범우사, 2007, 31쪽, 33쪽.

팔십 전 줍디다. 그것도 요즘은 오십 정식 주니 무얼 모아 보는 수가 있어야지요.”

“고향은 어디시오?”

“대구 지나 김천이올시다. 우리는 다 한 고향 사람들이지요.”

“그럼, 고향에 가시면 농사하십니까?”

“농사야 농토가 있어야죠. 우리 제가꿈 저 한몸만 같으면 조밥보다는 나으니 일본서 땡굴겠지마는 돈들도 못 벌 바에야 첫째 자식 그리워 허덕대구 나오지요.”⁴⁵⁾

김윤건과 조선 노동자들의 이 대화는 일제의 한국 수탈 정책을 고발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1920년대 이후 일본은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한국인들을 일본으로 끌어들이었는데 그들은 민족 차별, 열악한 노동 조건, 형편없는 저임금으로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았다. 저임금의 경우는 극히 심한 것이었는데 한국인의 경우 같은 일을 해도 일본인 임금의 절반밖에 받지 못했던 것이다. 이 소설에서도 그들의 이러한 노동력착취를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이 대화에서는 논밭을 빼앗겨 황무지로 개간 이민을 가거나 유리걸식을 하는 한국 농민들의 비참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⁴⁶⁾

이 참담한 행색의 한국인 노동자들을 통해 당시 일제의 탄압을 받는 조선의 현실에 무지했던 김윤건은 점차 조선의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게다가 조선 청년이라는 이유로 동경에서 배를 탈 때부터 형사로부터 조사를 받는 김윤건은 불쾌감을 느낀다. 이렇게 조선 땅에 발을 들여 놓은 순간, 김윤건에게 감지되는 것은 “조선다운 울분과 불안”이었다. 근대적 관념을 학습한 김윤건에서 무기력한 조선 현실의 변화는 물질적인 차원은 아니었다. “거리는 안국동에도 전차가 다니고 예전과 달라진 곳도 있지만

45) 이태준, 앞의 책, 38쪽.

46) 김도희, 앞의 논문, 271~272쪽.

는 생각던 바와는 너무도 변함이 없었다.”

1930년대 조선은 근대 문명이 어느 정도 물적 토대를 갖추면서 정착한 상황이었기에, 조선 현실의 변화는 단순히 물질이나 문물의 차원이 아니다. 근대 문명이 일상으로 침투하여 일상화되었다는 것은, 일제 강점기 상황이 이미 대중들에게 익숙하게 현실화되었음을 의미하며, 근대가 문물의 차원이 아니라 대중들의 사고방식과 인식체계라는 무형의 것에까지 지배력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⁴⁷⁾

서울로 온 김윤건이 발견한 조선의 현실은 조사와 검문으로 감옥에 들어간 지식인과 변절한 지식인, 그리고 개인적 출세나 생활 유지에 급급한 인물들로 넘쳐난다. 김윤건과 같이 민족의식을 가지고 독립 의지를 가진 이들은 감옥에 가고 배신자와 기회주의자만이 득세하는 타락한 현실인 것이다. 그리고 모교를 방문하고 나온 김윤건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생과의 대화에서 세속화, 속물화되어가는 지식인들에게 분노를 느낀다.

“오랜간만일세.”

“참, 오래간만일세. 자네도 동경 있지 않았나?”

“그럼, 나 옛저녁에 왔네. 자넨 작년에 마치지 않았나?”

“아냐, 중간에 병으로 일 년 놀았어……. 그래 나도 온 지 며칠 안 되네. 그래 어데 정했나?”

“무얼?”

“취직 말일세.”

윤건은 속으로,

‘이건 모두 취직밖에 모르나. 일본 사회나 무에 다르게?’
하였다.

47) 변경혜, 앞의 논문, 2001.

...(중략)...

“마 군, 배 군 다 훌륭하게 됐네. 마 군은 보전 졸업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금융조합 이사로 있고, 배 군은 작년에 경도제대를 나와서 총독부 식산국에 들어갔네. 상여금까지 치면 이백 원은 된다네…….”

“참 굉장하들 출세했네그러. 허허.”

윤건은 강 군을 보고 가자는 그 친구 말을 거절하고 부리나케 운동장을 건너 모교 대문을 나서고 말았다.

“참 맹랑들 하구나!”

윤건은 탄식하였다.

“나만 쓸개 빠진 놈인가, 저놈들이 쓸개 빠진 놈인가?”⁴⁸⁾

이렇게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기도 하지만, 김윤건은 이내 ‘사람의 하루를 갖자. 구복口腹에만 충실한 개의 십년은 나는 싫다. 사람의 하루를 갖자!’하며 선구자적 정의를 앞세운다. 이렇게 김윤건은 자신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찾아간 신문사에서 냉대를 받는다. 신간회 사무실을 찾아가지만 문은 굳게 잠겨있다. 당시 ‘사회운동가로 조선서는 제일 오랬고 제일 쟁쟁하다’는 박철도 찾아갔으나 그와의 의견 충돌로 다시 거리로 나온다. 당시 일제 강점기 시대 조선의 현실에서 김윤건의 좌절과 절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김윤건은 이러한 현실에 타협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일제의 탄압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로 가득한 현실에서 자신의 배만 채우려는 인물들, 더욱이 총독부라도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지식인들에게 분노한다. 그리고 결국 귀국할 때 만난 은행원과 함께 참석하게 된 술자리에서 그의 울분은 폭발하면서 난동

48) 이태준, 앞의 책, 44쪽.

을 부리고 ‘이리하여 육 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나 의탁할 곳이 없던 김윤건의 몸은 그날 저녁부터 관청의 신세를 지게’ 된다. 여기서 그가 보이는 폭력적 행동은 자신이 겪은 억압과 모순적 상황들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속물적 지식인에 대한 질책이며, 나아가 이를 조장하는 일제 강점기 시대 제도에 대한 저항이었다.

장영우⁴⁹⁾는 상황의 압력에 절대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사회 일탈자로 낙인찍히게 되지만 그 책임은 일탈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추방한 사회 제도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김윤건이 박철과 ××은행원에게 가한 폭력을 개인적 원한과 증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불의와 타락에 저항하고 대의를 세우려는 선비정신에서 그 연원을 찾는다. 어려서 고아가 된 이태준은 성장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스스로 조작하고 미화하는데, 관념으로서의 아버지상이 그에게 심어준 사상은 ‘민족(주의)’과 ‘선비정신’이었다. 그의 자전소설에 빈번히 목격되는 현실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기개는 고아의식과 선비정신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고향」은 참담한 현실과 이상의 괴리 사이에서 김윤건의 삶을 통해 당시 사회 현실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지식인의 절망과 울분을 잘 드러낸다. 이는 주체가 당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 통치를 체험함으로써 현실의 부조리를 인식하는 것이다. 작중인물 김윤건이 현실적인 조선의 상황에 좌절을 겪으면서 일제 강점기 시대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러한 현실에 순응하며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지식인들을 비판하면서 자신은 이들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는 주체의 현실비판과 실천적 의지로 볼 수 있다. 이는 주체가 전망폐쇄적인 현실을 인식하면서 현실과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과정으로 본다.

49) 장영우, 「이태준 소설의 특질과 의의」, 상허학회 편, 『이태준과 현대소설사』, 깊은샘, 2004.

(2) 민족주의적 성향과 과거 지향성

이태준 자전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자신과 대립하는 현실과 아무런 해결의 전망을 갖지 못한 채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다. 이러한 결말구조에서 인물은 비극적 상황에 대한 절망을 불러일으키지만, 전통·민족주의를 추구하고 과거에 의미를 두면서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 또한 비극적인 결말 구조라도 이 작품을 읽는 학습자는 당시 현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사유한다. 따라서 인물이 소설 속에서 당시 현실 상황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인물의 형상은 학습자들에게 당시 현실 상황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학습자를 정체성 형성 과정으로 끌어들이는다.

① 민족주의적 성향

이태준 자전소설 「패강냉」은 조선 고유의 혼을 말살시키려는 일제의 탄압으로 인한 지식인의 고뇌가 드러나는 작품으로 이 작품의 결말도 해결의 전망보다는 오히려 더한 고통을 예감한다.

「패강냉」의 작중인물 '현'⁵⁰⁾은 대동강 가 부벽루, 연광정 등지를 거닐며 '조선의 자연은 왜 이다지도 슬퍼 보일까?' 하고 한탄한다. 소설가 '현'은 자신의 소설에서 평양 장면을 쓰게 될 때마다 평양에 오고 싶었으나 좁처럼 시간을 못 냈었는데 마침 평양의 고등보통학교에서 한글과 한문을 가르치는 친구 박의 편지를 받고 내려오게 되었다. 조선어 시간을

50) 이태준 소설의 등장인물 중 “현”은 세 번 나온다. 「패강냉」, 「토끼이야기」, 「해방전후」가 그것인데 이 셋은 다분히 자전적 소설로 이때의 “현”은 이태준 자신이 된다. 특히 「토끼이야기」에서는 ‘최서해’의 實名도 나온다.

- 이병렬, 「광복기 작가의 한 유형- 이태준의 변신과 월북문제」

반으로 없애면서 점차 우리말 교육을 축소하고, 물자절약이라는 이유로 평양 고유의 풍습을 제한하는 등 일본 제국주의의 서리를 밟는다. '현'은 을밀대에 서 있는 병사를 보고 그냥 강가로 내려와 약속된 요정으로 온다. 박과 평양 부회원이 된 친일(親日) 실업가 김, 그리고 소설가 '현'은 오랜만에 만나 기생집에서 회포를 푼다. 그 자리에서 김은 현실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조선의 전통적 문물마저도 기꺼이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현'은 김과 언쟁을 벌이고 울분을 토하면서 슬리퍼 차림으로 강가로 내려온다. 그리고 그는 전신에 엄습한 냉기를 느낀다.

「쾌강냉」에는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작가 이태준이 투영된 소설가 '현'과 그의 학창시절 친구들인 고등보통학교에서 조선어와 한문을 가르치는 박과 평양의 부회원이며 실업가인 김이다. 이 소설에서 '현'과 박은 시대에 소외된 고통을 겪는 인물로 묘사되고, 부회 의원을 지내는 실업가 김은 친일 변절자로 비판되고 있다. 이러한 인물 관계⁵¹⁾는 소설 내용의 겉 구조의 의미로 문화 전통을 수호하는 박과 '현', 즉 소외된 처지의 인물들과 친일 변절자 김의 대립이 나타나고, 이러한 속뜻으로 일제의 문화말살 정책의 부도덕한 행정시책에 대해 고발하는 주제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 이에 따라, 이야기의 전체적 갈등은 민족의식이 있는 소수의 지식인과 일제의 비인도적 정책의 실시에서 야기된 것이어서 그 해결의 전망은 일제가 망하기 전에는 어려운 것이므로 거의 불투명한 결말로 끝나게 된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이미 입지가 불안해져 있는 박을, '현'은 그가 다니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전체에서 긴치 않게 여기는, 지긋지긋 붙어 있는 존재'같다고 생각하고 그런 박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51) 신동욱(1994), 「이태준 소설에 나타난 민족의식」, 『1930년대 한국소설연구』, 한샘, 29~30쪽.

떠올리며 괴로워한다. 이러한 '현'의 자의식은 당시 1930년대 무력감과 허무주의에 빠진 지식인의 모습이다. 일제 암울한 시대상황 속에서 현실에 타협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그렇다고 정면으로 나서서 제 뜻도 펼 수 없어 왜소해진 채 고민하는 지식인인 것이다.

이태준 소설에 나타난 이러한 지식인들은 상고주의적 취미를 보인다. 이러한 취미는 한 인물의 단순한 개인적 차원의 의미를 넘어 정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의의를 둔다. 이는 주체가 당시 상황의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현실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태준 자전소설 「폐강냉」에서도 우리 고유 풍속의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는 작중인물 '현'을 형상화하여, 그가 인식한 현실 상황의 문제를 전통미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이에 '현'은 당시 평양에서 그러한 전통미를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다.

'현'은 평양 여자들의 머리수건이 늘 보기 좋았었다. 단순하면서도 흰 호접과 같이 살아 보였고, 장미처럼 자연스런 무게로 한 송이 없힌 땀기는, 그들의 악센트 명랑한 사투리와 함께 '평양내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이였다.⁵²⁾

머리수건에 대한 묘사를 통해 전통적 풍속에 깃든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풍속은 민족 고유의 전통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현'에게 이러한 전통의식, 즉 과거에 대한 동경은 과거 그 자체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일제는 그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현실 가치에 기준을 두고 말살시키려 한다. 이에 '현'은 이러한 풍속을 금지시켰던 일제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일제를 비판한다.

52) 상허연구모임 편, 「폐강냉」, 앞의 책, 220쪽.

“그런데 박 군? 어찌 평양 와 수건 쓴 걸 볼 수 없나?”

“건 이 김 부회 위원 영감께 여쭙 볼 문젼세. 이런 경세가(輕世家)들이 금령을 내렸다네.”

“그렇다드군, 참!”

“누가 아나, 빌어먹을 자식들…….”

“이 자식들아, 너이야 말루 빌어먹을 자식들인게……. 그까짓 수건 쓴 게 보기 좋은 건 뤼며 이 평양부 내만 해두 일 년에 그 수건 값허구 당기 값이 얼마지 알기나 허나들?”

하고 김이 당당히 허리를 펴고 나앉는다.

“백만 원이면? 문화 가치를 모르는 자식들…….”

“그러니까 너이 글 쓰는 녀석들은 세상을 모르구 산단 말이야.”

“주제넘은 자식……. 조선 여자들이 뭘 남용을 해? 예펜네들 모양 좀 내기루? 예펜넨 좀 고와야지.”

“돈이 드는걸…….”

“흥! 그래 집 안에서 죽두룩 일해, 새끼 나 길러, 사내 뉘치개질 해……. 그리구 일 년에 당기 한 감 사 매는 게 과하다? 아서라, 사내들 술값, 담배값은 얼마지 아나? 생활 개선, 그래 예펜네들 수건 값이나 당기 값이나 줄여 먹구? 요 푼푼치 못한 경세가들아? 저인 남용할 것 다 허구…….”⁵³⁾

일제는 평양 여자들의 머리수건 풍속 속에 깃든 민족의식 또는 민족적 정서의 공통성과 그 유대감을 깨뜨리기 위하여 수건을 쓰는 풍속까지도 없애버리는 야비한 행적시책까지 폈다. 그리하여, 일제는 전쟁 준비에 모

53) 상허연구모임 편, 앞의 책, 226쪽 인용.

든 체제를 정비하며 우리 민족의 문화전통과 역사적 의미까지 말살하려 했다. 결국 '현'에게 풍속, 과거에 대한 동경은 현실을 비판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렇게 이 소설에서는 작중인물 '현'을 통해 조선의 고유한 혼이 말살되는 장면을 드러냄으로써 당시 일제의 문화침투와 강압적 무력통치를 우회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태준의 민족주의적 태도들이 전면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태준에게 전통이 그 특유의 멋과 아름다움을 동경하는 대상이자 현실을 성찰하는 매개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전소설에 형상화된 인물은 작가의 정체성 형성과도 연관 지어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현'이 평양 여인들의 머리수건을 동경한 또 다른 이유는 친구 박과 자신을 '시대 전체에서 긴치 않게 여기는' 과거 조선의 문물과 동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은 우리 '고유한 문화'와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는 자신과 전통에 동질감을 느낀 것이다. 이렇게 과거의 것에 '문화적 가치'를 부여한 '현'은 당시 사회의 근대화를 '푼푼치 못한 경세가(輕世家)'들로 표현하면서 비판한다. 여기서 '푼푼치 못한 경세가(輕世家)'들은 부회 의원 김을 가리키는 동시에 '생활 개선'이라는 거짓 명분으로 고유하고 개성적인 문화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말살시키는 일제에 대한 비난인 것이다.

이러한 '현'에게 당시 일제 강점기 시대에 기생하며 세속화 되어버린 부회 의원 김은 현실과 타협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상실되어가는 것에 대한 좌절과 절망은 '현'의 일시적인 울분으로 나타난다.

“아닌게아니라 자네들 이제부터 실속 채려야 하네.”

하고 김은 힐끗 '현'의 눈치를 본다.

“어떻게 채려야 실속인가?”

“팔릴 글을 쓰란 말일세 자네들 쓰는걸 이제부터 누가 알아야 읽지 않나? 나두 가끔 자네 이름이나 좀 읽어볼까 해두 요미니꾸꿏데……도
-모이깁……(읽기 힘들어서 도대체가 안 돼)”

“아니꺼운 자식…… 너희 따윈 안 읽어두 좋다. 그래 방향전환
을…… 뭐……어디가 글 쓰는 놈이 선견이구 어찌구 하는 구나? 똥내
나는 자식…….”

“나니?”

김이 빨금해진다. 김이 빨끈해지는 바람에 '현'도 다시 농담기가 걸
히고 눈이 뻥쩍 빛난다.

“더러운 자식! 나닌 무슨 말라빠진…….”

하더니 '현'은 술을 깨려고 마시던 사이다 컵을 김에게 사이다째 던
져버린다. 깨어지고 튀고 하는 것은 유리병만은 아니다. 기생들이 그
리로 쏠린다, 보이들도 들어온다.

“이 자식? 되나 안 되나 우린 이래 배두 예술가다! 예술가 이상이
다. 이 자식…….”⁵⁴⁾

이러한 '현'의 반발과 울분은 결코 순순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는 당시 현실에서 작가 이태준이 느꼈을만한 무력감의 표출이다.
자전적 인물인 '현'이 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즉흥적 행동 역시 나약한

54) 이 부분은 개작하기 전 『삼천리문학』 1집(1938.1)에 실린 소설의 내용이다. 이태준은 이 작품을 1941년 단행본으로 출간할 때에는 현실 비판의식이 투사된 내용은 수정 및 삭제하여 작가의 사상적 경향을 은폐하였다.

- 상허연구모임 편, 「패강냉」, 앞의 책, 231쪽 각주 인용.

지식인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는 작중인물 '현'을 통해 가혹해 지는 일제의 탄압 속에서 작가로서 글을 써야하는 작가 이태준의 모습이 반영된 것이다.⁵⁵⁾ 이러한 그의 좌절과 절망은 인간 모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물들이 살아가는 사회적인 모순에 있다는 것이다.

이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현'은 술자리에서 행패를 부리고 나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다.

“이상견빙지履霜堅氷至…….”

『주역周易』에 있는 말이 생각났다. 서리를 밟거든 그 뒤에 얼음이 올 것을 각오하란 말이다. '현'은 술이 확 깬다. 저고리 셔츠를 여미나 찬 기운은 품속에 사무친다. 담배를 피울 하나 성냥이 없다.

“이상견빙지…… 이상견빙지…….”

밤 강물은 시체와 같이 차고 고요하다.⁵⁶⁾

‘이상견빙지履霜堅氷至’, 즉 서리를 밟게 되면 머지않아 매서운 겨울이 닥칠 것이라는 뜻으로, 위기의 기미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주역(周易)》의 말을 상기하고 있다. 이는 일제 강점기 시대의 소설가인 '현'의 삶이 더욱 어려워 질 것과 일제의 압력에 점차 거세어질 것을 예감하는 것이다.

결국 이 작품의 주체는 상실되어 가는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문제를 느끼고 현실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이를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현실에 대응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55) 작가 이태준은 1938년 1월에 이 작품 「폐강냉」을 발표하고, 1939년 『문장』에 「영월영감」을 발표하기까지 침묵으로 일관한다. 장편소설조차 연재하지 않았으니, 작가 이태준의 고뇌가 깊었음을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다.

- 이익성, 앞의 논문 272쪽, 2010.

56) 상허연구모임 편, 「폐강냉」, 앞의 책, 233쪽

이와 같이 현실 상황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를 비판하는 소설들은 인물이 처한 상황과 사대 극복의 불가능성을 부각시킴으로써 학습자가 정체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도록 촉구한다.

이에 학습자는 인물과 함께 현실 상황의 문제를 경험하고, 이를 인식하며 함께 절망하는 가운데 정체성에 대해 의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그때까지 학습자가 경험하지 못했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을 일깨워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과거 지향성

이태준 자전소설에서는 작중인물은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비판적 의식을 드러낸다. 이에 이태준 자전소설을 읽을 때 초점화자가 된 인물 시각에 주목하여, 인물이 자아와 현실에 대해 취하는 인식적 거리 및 비판적 의식을 통해 인물을 살펴보아야 한다. 객관적 거리에서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인물은 앞의 「패강냉」에서와 같이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의 문제를 현실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과거에 가치를 두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이러한 과거에 의미를 두고 인물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한다. 현실을 객관화하여 비판하는 과정에서 자아를 객관화하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과거를 통해 현재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는 인물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 자신을 재인식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자전소설 읽기는 학습자의 정체성 형성과도 연관 지어 살펴볼 수 있다.

일제의 조선민족 말살 정책이 시작되면서 이 시기의 이태준 자전소설

의 서술 주체는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주위 환경과 주변 인물들을 관찰하는 듯하면서도,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신변잡기 식 수필적 구성의 소설인 「장마」는 전업 작가로서 이태준의 개인적인 체험이 드러나는 이태준 자전 단편 소설이다.

「장마」의 작중인물 ‘나’는 실제 이태준과 동일한 점이 많이 발견된다. 강원도 출신, 조선중앙일보사 근무 경력, 성북동에 위치한 자택, 딸 이름 ‘소명’, 실제 당시 문인들의 이름, 이상·구보(박태원)·여수(박팔양)·빙허(‘현’진건)·수주(변영로)·노산(이은상)·일보(함대훈)·석영(안석주)·월파(김상용)·일석(이회승), 윤 동요작가 윤석중, 『달밤』이라는 소설집 집필, 구인회 모임, 구인회 회원들이 자주 찾았다던 낙랑파라의 ‘낙랑’ 등이 실제 이태준의 행적과 일치하여 마치 이태준의 수필을 읽는 듯하다.

이렇게 이태준의 자전적 인물의 하루 일과를 그린 이 소설은 주로 그의 내면의식 흐름에 따라 서술되고 있다.

‘나’는 장마로 인해 방안에 갇혀 지내다가 아내와의 말다툼으로 집에서 나와 시내로 향한다. 성북동 집에서 나와 버스를 타기까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 동네의 곰보와 곱추 부부의 가게를 지나면서 그들이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 그러다가 자신과 아내의 만남과 결혼에 관련된 생각이든지, 늘 자신을 기다려주지 않는 버스에 대한 생각을 나열한다. 그리고 예전에 근무하던 조선중앙일보사를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난다. 그리고 ‘나’는 신문사, 출판사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 예술가의 모습에 비판을 한다. 조선중앙일보사에서 나와 찾집 낙랑을 가는데 그곳에서 ‘친구’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지난번 자신에게 편지를 보낸 과거 어린 시절 고향 친구가 생각나 그 편지의 답으로 보낼 책을 사러 서점에 들렀다가 중학교 동창을 만난다. ‘나’는 자신에게 밥을 사주며 괜찮은 여

자를 소개해 달라는 중학교 동창의 말을 들으며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헤어진다. 그리고 중국인 거리에서 아내가 좋아하는 돼지 족을 사들고 집에 들어오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이 소설은 잡다한 일상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작중인물 ‘나’의 경험을 통해 일제의 식민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안국동서 전차로 갈아탔다. 안국정安國町이지만 아직 안국동이라야 말이 되는 것 같다. 이 동洞이나 이理를 강그리 정화町化시킨 데 대해서는 적지않은 불평을 품는다. 그렇게 비즈니스의 능률만 본위로 문화를 통제하는 것은 그릇된 나치스의 수입이다. 더구나 우리 성북동을 성북정이라 불러 보면 ‘이주사’라고 불러야 할 어른은 ‘리상’이라고 남실거리는 격이다. 이러다가는 몇 해 후에는 이가니 김가니 박가니 정가니 무슨 가나가 모두 어수선스럽다고 시민의 성명까지도 무슨 방법으로든지 통제할는지도 모른다.

모든 것에 있어 개성(個性)을 살벌하는 문화는 고급한 문화는 아닐 게다.⁵⁷⁾

‘나’는 동洞이나 리理로 불렀던 우리 고유의 명칭을 일본식인 정町으로 바꾸는 것을 문화 통제로 여기고 이에 비판적이다. 이는 시민의 성명까지도 통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개성을 획일화하여 우리 고유의 것을 말살시키려는 일제의 탄압에 대한 작가의 불만이기도 하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불평을 품”고 “비즈니스의 능률만 본위로 문화를 통제하는 것은 그릇된 나치스의 수입”이라고 직접 비판하고 있는 점에

57) 상허연구모임 편, 「장마」, 『새로 가려 뽑은 이태준 소설 읽기』, 예음, 2010, 176쪽.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전차를 타고 지나가며 문득 떠오른 생각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가 평소에 세계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는 태도에 익숙해 있었다면 그런 생각조차 떠올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일제 강점기 시대 현실을 타락한 세계로 규정하고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완전히 그 세계와 자신을 단절시켰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가 이른바 ‘쓰는 소설’로서의 단편과 달리 ‘썩키는 소설’로서 장편을 다수 창작한 것은 작가로서의 세속적 명성을 얻기 위한 속물적 계산에서가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책임 때문이라 보는 것이 합당하다.⁵⁸⁾

이렇게 현실 비판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장면으로, ‘현’은 출판사에서 일에 얽매어 예술 활동을 하지 못하는 친구 문인들을 보며, 개인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회를 비극이라 표현하고 있다.

선미禪味 다분多分한 여수 사회부장 자리에서 강도나 강간 기사 제목에 눈살을 찌푸리고 앉았는데 아무리 보아도 비극이다. 동아에선 빙허憑虛가 또 그 자리에서 썩는 지 오래다. 수주樹州 같은 이가 부인 잡지에서 세월을 보내게 한다.

“이렇게까지들 사람을 모르나?”

좋게 말하자면 사원들의 재능을 만점으로 가장 효과적이게 착취할 줄들을 모른다. 내가 한번 신문, 잡지사의 주권자가 된다면, 인재 배치에만은 지금 어느 그들보다 우월하겠다는 자신에서 공연히 썩는 이들을 위해, 또 그 잡지 그 신문을 위해 비분해 본다.⁵⁹⁾

개개인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예술가들을 일련의 노동자로 취급하는

58) 장영우, 앞의 논문, 상허학회 편, 『이태준과 ‘현’대소설사』, 깊은샘, 2004, 181쪽.

59) 상허연구모임 편(2010), 「장마」, 앞의 책, 177쪽.

출판사, 신문사를 비판하는 이 구절 역시 일제 강점기 시대 일제에 대한 ‘나’의 부정적인 시각이 드러난다. 1930년대 근대 도시의 형태를 갖춘 경성에서 이러한 경험들은 ‘나’에게 무가치하게 나타나며, 반근대적인 의식을 갖게 한다. 이 부정적인 공간, 도심을 배회하던 ‘나’는 이내 가치 있는 것을 그리워하는데 이는 현재 ‘나’의 말동무를 떠올리는 행위로 나타난다.

말동무가 그림다. 조광사에 들러보고 싶은 생각도 난다. 그러나 들르나 마나다. 뻘한 노릇이다. 노산鷺山은 전화로 맞추고 가기 전에는 자리에 없기가 일쑤요, 일보一步는 직접 편집에 양적量的으로 바쁜 이요, 석영石影은 삽화 그리기에 한참씩 눈을 찌푸리고 빈 종이만 내려다보아, 얼른 보기엔 한가한 듯하나 질적質的으로 바쁜 이다.⁶⁰⁾

이에 ‘나’는 낙랑으로 갔지만, 아는 얼굴들은 있고, ‘친구’는 없다. 여기서 아는 얼굴들은 ‘나’를 보고도 시치미를 떼며 얼굴을 돌려버리는 근대적 인물들이다. 이러한 인물들에게 불쾌한 감정을 느낀 ‘나’는 피상적 인간관계를 비판하며 이내 ‘진정한 관계’, ‘친구’에 대해 생각한다.

‘이러고도 친구 간인가? 친구라 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이 들어간다. 생각해 보면 오늘 만나본 중앙일보사의 모든 사람들, 또 지금부터 만났으면 하는 구보나 이상이나 월파나 일석이나 모두 안 그런 친구는 하나도 없지 않은가? 모두 한 신문사에 있었으니깐 알았고 한 학교에 있었니깐 알았고 한 구인회九人會 회원이니깐 안 것뿐이 아닌가? 직업적으로, 사무적으로, 자주 인사하니까 손도 잡고 흔

60) 상허연구모임 편(2010), 「장마」, 앞의 책, 180쪽.

들게 되고 하는 것뿐이지 더 무슨 애뜻한, 그리고……‘ 하는 말이 모두 썩스럽지 않은가? 그러자 나는 몇 어렸을 때 친구 생각이 난다.⁶¹⁾

작중인물 ‘나’는 근대적 지식을 습득한 자신과 그들의 관계, 더 무슨 애뜻한 감정이 아닌 피상적인 인간관계에 성찰한다. 이 관계들은 ‘내’가 앞서 근대화된 도시 경성에서 경험한 무가치한 것들과 다르지 않은 근대화된 산물인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과거 어린 시절 고향 친구들을 떠올리고, 그들에게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무식하다고 하여 상대하지도 않았던 과거 어린 시절 고향 친구들은 근대화 되지 않은, 근대화 이전에 가치 있는 것들로 ‘나’에게 새롭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용기, 흥봉이, 학순이, 봉성이……。 그들은 정말 친구라 할 수 있을까? 어려서 빨가벗고 한 개울에서 헤엄치고 자랐다. 그래서 용기 다리에는 무슨 흠집이 있고 봉성이 잔등에는 기미가 몇인 것까지도 안다. 학순이는 대운동회 때, 나와 이인삼각二人三脚의 짝이 되어 일등을 탄 다음부터 더 친하게 놀았다. 그들의 조부모는 어떤 사람들이고 부모는 어떤 사람들이고 죄 안다.

...(중략)...

“참! 지난 봄에 학순에게서 편지 온 걸…….”

나는 아직 답장을 해주지 못한 것을 깨닫는다. 몇 가지 부탁이 있는 것까지 모른 채해 버리고 만 것이 생각난다. 그 때 즉시 답장을 하지 못한 것은 바빠서라기보다 그냥 모른 채해 버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중략)...

소학교 이루 그는 농촌에만 묻혀 있으니 남의 창작집을 『추월색』

61) 상허연구모임 편(2010), 「장마」, 앞의 책, 185쪽.

따위 이야기책과 비겨 말하려는 것이 무리는 아니나 좀 불쾌하기도 하고 『달밤』을 보낸댔자 그의 기대에 맞을 리가 없을 것이 뻔하여 그 고집불통까지도 잠자코 내버려뒀던 것이다.

나는 후회한다. 그가 알고 읽든 모르고 읽든, 한 책 보내주어야 할 정리에 쥐뿔 같은 자존심만 낸 것을 후회한다.⁶²⁾

‘나’의 진실한 관계, 친구에 대한 성찰은 당시 사회에 익숙해진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성이다. 어릴 적 고향 친구 ‘학순’을 무시하며, 지난 봄 그에게 편지 온 것을 모른 척 해버린 ‘나’도 근대적 지식인으로 당시 사회에 익숙해진 인물이다. 그러나 ‘나’는 오늘 하루 근대화된 경성을 배회하며 이 근대화의 무가치한 것들을 경험하고, 이에 익숙해졌던 자신을 후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작품의 작중인물 ‘나’는 일제 강점기 정책에 대해 타성적인 인물로 그려지며,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러한 ‘나’를 반성한다. 이에 주체는 근대화를 배경으로 한 일제 강점기 정책에 익숙해져버린 당시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모습에 반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학교 동창인 강군을 만나 ‘나’가 여학교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을 전해들은 강군이 사업하느라 바빠 결혼을 못한 자신에게 혼인자리를 소개해 줄 것을 듣고는 한심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살림을 안 시킬’ 것이라는 강군과 달리 ‘아내에게 어려운 살림을 시키는 남편’인 ‘나’는 남편으로서의 자신을 반성을 하며 아내가 좋아하는 돼지 죽을 사들고 집에 들어온다.

이 소설은 내면 의식 흐름 기법으로 작중인물 ‘나’의 여러 사고들은 타자를 관찰하는 ‘나’의 생각에서 생성되고 있다. 결국 이태준의 자전소설

62) 상허연구모임 편(2010), 「장마」, 앞의 책, 185~186쪽.

「장마」의 작중인물인 ‘나’의 주체도 타자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작가의 신변잡사를 위주로 하는 이야기로 허구와 사실의 경계를 허물면서 인물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을 취한 「장마」는, 이후 「쾌강냉」(1938.1), 「토끼이야기」(1941.2), 「사냥」(1942.2), 「무연」(1942.6) 등의 심경소설을 예비하고 있다고 본다.⁶³⁾ 이태준 소설에 나타난 개성, 서정과 관조의 주체로서의 ‘자기’는 개인주의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집단적, 공통 감각적 성격을 띤다. 그래서 심경소설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개인의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관련된 공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계몽의 실천도 공·사가 미분화된 공동체 지향의 지사적 의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⁶⁴⁾ 이는 이태준 자전소설에 나타난 작중인물 ‘나’의 정체성이 개인의 현실 대응 방식을 드러내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당대 사회와 그 사회를 살아가는 다른 인물들의 정체성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체는 작품 내내 ‘거리두기’ 방식으로 근대화된 도시의 무가치한 경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고향 친구들을 떠올리는 행위로 자신의 주체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작중인물 ‘나’가 당시 현실과 주변 인물들 모두에 대해 객관적으로 거리를 유지하고 관조자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곧 이들의 태도에 대한 거리 유지이기도하다. 이로 인해 ‘나’는 적응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무조건적인 적응도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삶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리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인물이 객관적으로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과거를 되돌아보는 행위는 학습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과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태도를 갖게 한다. 이러한 학습자는 기존의 자아에

63) 상허연구모임 편(2010), 문혜윤, 「산책자의 내면- ‘장마’ 해설」, 앞의 책, 193쪽.

64) 진영복, 앞의 논문, 95쪽.

서 벗어나 보다 나은 자아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3) 성찰과 자기정립

일제의 탄압이 점차 가혹해질수록 일상적인 태도를 유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에 당시 상황을 인식한 주체는 현실 세계에 대한 반성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새로운 태도를 정립하려는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정체성 형성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현실 상황 인식을 통한 반성은 일종의 깨어있는 의식의 결과로 보고, 자아분열은 주체가 자신을 객체로 취함으로써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인식적 조건이다.

이태준 자전소설에서 현실에 대한 체험은 소설로 형상화됨으로써 반성적으로 인식의 대상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태준 자전소설이 현실에 대한 주체의 체험을 대상화하는 양상을 통해 일제강점기 현실에 대한 반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의 탄압이 가혹해질수록 주체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과 삶에 대한 이상을 버려야하는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체는 자신을 무기력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 때 타자는 주체가 반성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일제 강점기 시대 주체의 반성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이태준의 자전소설로 1941년 『문장』에 발표된 단편으로 「토끼이야기」가 있다.

「토끼이야기」의 작중인물 '현'은 월급을 잘 받지 못하는 중외일보에 있으며 서해의 도움으로 매일신보에 원고를 써서 하숙비를 낸다. 집

한 칸도 없이 장가를 들어 동아일보에 자리를 얻어 일하는 한편, 연재소설을 써서 집을 마련하고 생활의 안정을 얻는다. 하지만 동아와 조선이 폐간당하며 '현'은 곧 일자리를 잃게 된다. 그리고 '현'은 연일 술만 마시다가 아내의 성화로 퇴직금을 털어 그 밑천으로 토끼를 기르기로 작정한다. 20마리의 토끼가 금방 40마리로 늘어났으나 문제는 사료였다. 풀과 아카시아만 먹일 수 없어 비지와 건조 사료를 구입하여 토끼를 키워야 했다. 그런데 가을이 들면서 사료과동이 일고 비지와 건조 사료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집안에 우글거리는 토끼라 큰 짐이 아닐 수 없었다. 토끼를 헐값에 처분하든지 아니면 토끼를 죽여 가족을 장만하든지 해야 했다. 고심 끝에 '현'은 책사에 들러 토끼를 도살하는 법을 익혀 집으로 와 토끼를 끌어내지만 선뜻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 소설을 쓰고 있는 중에 아내가 '현'을 부른다. 아내는 피투성이가 된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 옆에 토끼 가족을 두 마리나 벗겨 놓았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임신한 아내가 한 것이다.

이 작품은 이태준 자신의 자전적 기록을 작중인물 '현'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중외일보』,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등장과 결혼 이후 가정사를 보았을 때 1930년대에서 40년대 초⁶⁵⁾까지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소설에서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온 모습들이 나타난다.

'현'은 그 후 『중외』에 있으면서 실상 『매신』의 원고료로 하숙집

65) - 1930 (27세) 이화여전 음악과를 갓 졸업한 이순옥李順玉과 결혼.
 - 1931 (28세) 『중외일보』(6.19중간)기자로 활동하다가, 신문 폐간과 함께 개제된 『중앙일보』(사장 여운형)학예부 기자가 됨.
 장녀 소명小明 태어남. 경성부 서대문정 2정목 7의 3다호에 거주.
 - 민충환, 「이태준 작가 연보」, 『이태준과 현대소설사』, 깊은샘, 2004, 402쪽 발췌.

마누라의 입을 겨우 틀어막곤 하였다.

...(중략)...

공연히 남까지 데려다 고생을 시켜? 하는 반성이 한두 번 아니었으나 결국 직업도 없이, 집 한 간 없이, '현'은 허덕 장가를 들어놓았다, 제 한 몸 이상을 이끌러 나간다는 것은 확실히 제 한 몸 전신으로 힘을 써야 할 짐이었다. 공부고 예술이고 모두 제이 제삼이 되어버렸다. 배운 도적질이라 다시 신문사밖에는 때를 쓸 데가 없다. 다행히 첫 아이를 낳기 전에 월급은 제대로 나오는 『동아』에 한 자리를 얻어, 또 신문소설이라도 한엿으로 써내는 기술을 가져, 그 때만 해도 한 평에 이삼 원씩이면 살 수가 있었으니 전차에서 내려 이십 분이나 걷기는 하는 데지만 우선은 집 걱정을 면할 오막살이가 물어오는 이백여 평의 터를 샀고, 그 후 부府로 편입이 되고 당 시체가 오르는 바람에 터전 반을 떼어 팔아 넉넉히 십여 간 기와집 한 채를 짓게까지 되었다.⁶⁶⁾

이 소설의 작중인물 '현'은 출판사, 신문사에 글을 쓰며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이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당시 시대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저기 글을 쓰면서도 '현'은 순수문학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고 있다.

'현'은 일 면에 하나씩은 신문소설을 썼다. '현'의 야심인즉 신문소설에 있지 않았다. 단편 하나라도 자기 예술욕을 채울 수 있는 창작에 자기를 기르며 자기를 소모시키고 싶었다. 나아가서는, 아직 지름길에서 방황하는 이곳 신문학을 위해 그 대도大道로 들어설 바 교량이 될 만한 대작이 그의 은근한 본원이기도 했다.⁶⁷⁾

66) 상허연구모임 편, 「토끼이야기」, 앞의 책, 298쪽.

67) 상허연구모임 편, 「토끼이야기」, 앞의 책, 300쪽.

그는 '단편 하나라도 자기 예술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창작에 자기를 기르며 자기를 소모시키고 싶'어 한다.

이러한 '현'의 태도와 달리 절박하게 현실을 살아내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현'의 아내이다. 한 때 '현'의 아내는 문학과 음악을 즐기고 화초를 기를 줄 아는 여성이었으나, '현'과 결혼 후 넉넉지 못한 생활에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인물이 되었다.

이 '현'의 아내는 바로 이들 집에서 고개 하나 너머 있는 M여전 문과 출신이다. 오막살이에서나마 처음에는 창마다 유리를 끼고, 꽃무늬 커튼을 드리우고, 벽에는 밀레의 「안젤루스」를 걸고, 아침저녁으로 화분을 가꾸었다. 때로는 잠든 어린 것 옆에서 조슬랭의 자장가도 불렀고, 책장에서 비단 뚜껑 한 책을 뽑아다 브라우닝을 읊기도 하였다. 아이가 들이 되면서부터, 그리고, 그 혼한 건양사 집들이 좌우전후에 즐비하게 들어앉는 것을 보면서부터는 모교가 가까워 동무들이 자주 찾아오는 것을 도리어 싫어하였고, 어서 오막살이를 할고 번듯한 기와 집을 지어보려는 설계에 과묵하게 되었다. 안젤루스에 먼지가 앉거나 말거나, 화초분이 말라 시들거나 말거나 그의 하루는 그것들보다 더 절박한 것으로 프로가 짝 차는 것 같았다.⁶⁸⁾

앞의 인용에 서술한 아내의 모습은 당시 일제 강점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당장 생활을 유지하는데 급급하여 예전의 이상과 꿈은 잊힌 채 살아가는 것이다.

이에 순수 문학에 대한 열정을 간직한 '현'은 생활력 면에서 가장의 역

68) 상허연구모임 편, 「토끼이야기」, 앞의 책, 299~300쪽.

할을 하지 못한다. 신문, 잡지의 폐간으로 그의 수입이 없어졌을 때도 술을 마시며 지내다가 아내의 권유로 퇴직금을 밑천으로 토끼를 사육한다.

이 작품에서 토끼를 기르는 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명랑하고 건설한 생활 방법 중 하나였다. 작중인물 '현'은 어떻게든 살아 견뎌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제가 장려하는 토끼 사육을 결심한다. “명랑하라, 건설하라, 시대는 확장기로 외친다”, “시대가 메가폰으로 소리쳐 요구하는 명랑하고, 건설한 생활일 수도 있는 점에 '현'은 더욱 든든한 마음으로 토끼 치기를 결심하였다.”는 구절은 토끼 기르기의 성공은 일제가 요구하는 시대의 명랑성에 부응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런데 「토끼 이야기」는 토끼 기르기의 실패담을 이야기 하고 있고, 이는 이태준이 의도했거나 아니거나 상관 없이 일제 말기를 살아가는 이태준의 처세법의 한 대목이 내재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본다.⁶⁹⁾

그러나 사료과동이 일고 비지와 건조 사료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더 이상 토끼를 기를 수 없게 된다. 생계를 위해 토끼를 헐값에 처분하든지 아니면 토끼를 죽여 가족을 장만하든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작중인물 '현'은 토끼의 가족을 벗기지 못한다.

암만 생각하여도 그 목을 졸라 쥐고, 뼈들적거리는 것을 이기노라고 가치 힘을 쓰며 뒤어 쓰는 눈을 내려다보고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리는 노릇, '현'은 그 목을 졸라 죽이는 법에 자신이 생기지 못한다.⁷⁰⁾

그는 차마 토끼를 죽이지는 못하고 독촉하는 어느 잡지사에게 ‘이 놈의 토끼이야기’를 써서 단돈 십 원 벌이라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과 달리 생계를 위해 아내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인다. 무기력한 ‘현’

69) 박진숙, 「시대의 명랑성에 대처하는 법」, 상허연구모임 편, 「토끼이야기」 해설 부분, 앞의 책.

70) 상허연구모임 편, 「토끼이야기」, 앞의 책, 311쪽.

과 달리 퇴직금을 밑천으로 토끼를 길러 생계를 이어 나가자는 것도 아내였고, 사료 파동으로 토끼를 죽여 가족을 벗기는 것도 그의 아내이다.

“여보? 어디계슈?”

하는 아내의 찾는 소리가 난다. 내다보니 얼굴이 종잇장처럼 해쓱해진
아내는 두 손이 피투성이다.

“응!”

“물 좀 떠줘요”

“웬 피유?”

아내의 표정을 상실한 얼굴은 억지로 쥘기여 웃음을 짓는다. 피투성이 두 손은 부들부들 떠다. '현'의 아내는 식칼을 가지고 어떻게 잡았는지, 토끼 가족을 두 마리나 벗겨 놓은 것이다. '현'은 머리칼이 쭈뼛 솟았다.

“당신더러 누가 지금 이런 짓 허래우?”

“안힘 어떻허우? 태중은 뭐 지냈수? 어서 손 씻게 물좀 떠나요.”

하고 아내는 토끼털과 선지피가 엉킨 두 손을 짹 벌려 내민다. '현'의 머릿속은 불'현'똥, 죽은 닭의 눈을 신문지로 가려놓고야 썰던 아내의 그 전 모습이 지나친다. 콧날이 찌르르하며 눈이 어두워졌다.

피투성이의 짹 버린 열손가락, 생각하면 그것은 실상 자기에게 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⁷¹⁾

아내는 “안힘 어떻허우? 태중은 뭐 지냈수?”하며 서슴없이 토끼를 잡았다. 더군다나 아내는 손을 벌려 물을 요구한다. 여자가, 그것도 임신 중의 몸으로 피 묻은 손으로 요구하는 것, 그것은 '현'에게 현실을 요구

71) 상허연구모임 편, 「토끼이야기」, 앞의 책, 312쪽.

하는 것이다. '현' 역시 피투성이의 짝 벌린 아내의 손가락을 보며 그것이 자신에게 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 이렇게, 전편에 걸쳐 순수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위장한 '현'의 심약함에 아내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현실대응을 요구한 것이다.⁷²⁾ 이에 '현'은 자신과 달리 현실대응에 적극적인 인물인 아내를 통해 가난하면서 집안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한 우유부단한 자신을 반성한다.

이렇게 이태준 자전소설에 나타난 주체의 반성은 근대적 일제 강점기 사회에 익숙해진, 그리고 일제의 탄압 속에서 무기력한 작가로 살아야 했던 자신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난다. 이 작품에서 주체는 타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나타나고, 주체는 반성을 통해 가치 회복을 지향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현실 상황의 문제를 인식한 이태준 자전소설의 인물들은 자아성찰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기도 한다. 이태준 자전소설의 일련의 사건은 이러한 인물의 현실 대응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인물의 정체성을 드러낸 소설들의 경우, 인물이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에 대응을 해 나가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이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인식에 도달한다.

이에 해당하는 이태준 자전소설로는 1946년 <문학>에 발표된 '한 작가의 수기'란 부제가 붙은 「해방 전후」가 있다. 해방 전 정체성의 위기에 처해있던 주체가 해방 후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삶의 의지를 보이는 작품이다.

72) 이병렬, 「광복기 작가의 한 유형- 이태준의 변신과 월북문제」

이 작품의 ‘수기’의 형식과 이태준 자전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현’이라는 이름은 이 작품이 자전소설임을 알게 해준다. 이에 이 작품은 해방 후 이태준의 문학세계는 사회 현실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던 이태준의 행동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작품으로 보기도 한다.⁷³⁾

해방 전, 작가 ‘현’은 무슨 사상가고 주의자고, 무슨 전과자도 아니었지만 당시 시대 상황에 소극적인 태도로 가급적 일제에 협조를 하지 않다가 살던 집을 세 놓고 강원도 산읍으로 들어간다. ‘현’은 창씨개명이나 친일 작품 혹은 일어(日語) 창작을 거부했으나 대동아전기(大東亞戰記)의 번역은 거절하지 못한다. 당시 시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온 산골은 일제의 감시가 더욱 심한 곳이었다. 이러한 감시를 피해 낚시로 소일하던 ‘현’은 그곳에서 김 직원을 만나 교유한다.

‘현’은 문인 보국회에서 주최하는 문인 쉼기 대회에 참석은 하지만, 자신이 연설할 차례가 다가오자 대회장을 빠져 나온다. 일제(日帝)도 길어야 일 년이라는 생각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는 자신의 문학을 반성한다. 이즈음 주재소에서는 ‘현’이 시국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경고하는 출두를 명령한다.

전국 도유생(道儒生) 대회와 관련해 김 직원이 잡혀 들어가고, 서울 친구의 전보를 받고 상경하던 ‘현’은 일제의 패망과 조선의 독립 소식을 듣는다.

8월 17일 새벽에 서울에 도착한 그는 서울 정황에 불쾌해 한다. ‘조선 문화 건설 중앙 협의회’를 찾은 그는 이들이 작성한 선언서에 서명한다. 그리고 좌익 문화 단체인 ‘프로 예맹⁷⁴⁾’과 통합한다.

73) - 1945(42세) 문화건설중앙협의회, 문학가동맹, 남조선민전 등의 조직에 참여, 문학가동맹 부위원장, 민전문화부장을 맡음.

『‘현’대일보』 주간에 취임.

- 민충환, 「이태준 작가 연보」, 『이태준과 ‘현’대소설사』, 깊은샘, 2004, 402쪽 발췌.

탁치(託治)의 문제가 드러나자 '현'은 동료들과 반탁의 입장에 서서 강연에 참가한다. 그는 곧 이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조선 공산당의 찬탁을 인정한다. 좌익과 우익의 반탁, 찬탁 데모로 어수선한 가운데 김직원은 서울을 떠난다고 말한다. 그를 보며 '현'은 중국의 문인 왕국유(王國維)를 생각한다.

일제의 탄압이 최고조로 행해졌던 일제 강점기 말에 최소한의 자기를 지켜 내는 고뇌를 통해 인물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면, 해방 직후의 혼돈된 상황에서는 적절하고 정당한 방향을 찾아 작가로 새로운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실천적 의지를 가진 인물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인물이 해방 직후 실천적으로 삶의 의지를 보이는 모습은 해방 직후 주체가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고 재정립하는 과정으로 본다. 이에 해방 전과 해방 후 자전적인 인물인 '현'의 현실 대응 방식을 통해 작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일반지원병제도'와 '학생특별지원병'이라는 소재는 이태준의 다른 자전소설에서와 같이 당시 현실 상황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이에 일반 청년과 학생들은 '현'에게 고민 상담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당대 현실에 대한 '현'의 울분이 드러난다.

'현'은 하루 이틀 동안에 극도의 신경쇠약이 된 청년도 보았고 다녀간 지 한 주일 뒤에 자살하는 유서를 보내온 청년도 있었다. 이런 심각한 민족의 번민을 '현'은 제 몸만이 학병 자신이 아니라 해서 혼자 뒷날을 사려해 가며 같은 불행한 형제로서의 울분을 절제할 수는 없었

74)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다. 때로는 전혀 초면들이라 저 사람이 내 속을 떠보려는 밀정이나 아
 닌가 의심하면서도, 그런 의심부터가 용서될 수 없다는 자책으로 '현'
 은 아무리 낯선 청년에게라도 일러주고 싶은 말은 한마디도 남긴 적이
 없는 흥분이곤 했다. 그들을 보내고 고요한 서재에서 아직도 상기된 '현'
 현'의 얼굴은 그에 무슨 일을 저지르고 만 불안이었고 이왕 불안일 바
 엔, 이왕 저지르는 바엔 이 한 걸음 한 걸음 절박해 오는 민족의 최후
 에 있어 좀 더 보람 있는 저지름을 하고 싶은 충동도 없지 않았으나
 그 자신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너무나 오랜 동안 굳어버린 성격의 껍
 데기는 여간 힘으로는 제 자신이 깨트리고 솟아날 수가 없었다.⁷⁵⁾

일제의 강압에 의해 전쟁에 참여해야하는 청년, 학생들에 대한 작중인
 물 '현'의 안타까움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이는 당시 휩박받는 우리 민족
 에 대한 이태준의 관심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작중인물 '현'의 울분은 일시적이고 소극적 태도로 나타나고,
 결국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나약한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모습에 반성
 한다. 당시 '현'의 자아비판 의식은 해방 후에 이태준이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하는 계기가 된다. 그는 당시 자신의 최근작인 「무연」의 한 구
 절을 인용하여⁷⁶⁾ 시대가 변하면 자신의 이러한 태도도 변화될 것임을 암
 시하고 있다. 이러한 작중인물의 자아 비판의식과 현실 변화에 대한 암시
 가 내재되어 있었기에, 해방 이후 이태준의 작품 경향이 좌파계열의 경향
 과 문학으로 전환된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다.⁷⁷⁾

이 작품에서 소설가 '현'이 일제의 폭력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굴욕으

75) 상허연구모임 편, 「해방 전후」, 앞의 책, 362쪽.

76) “한 사조思潮의 밑에 잠겨 사는 것도 한 물밑에 사는 낯일 것이다. 상전벽해桑田碧海라 일러는 오나
 모든게 따로 대세의 운행이 있을 뿐 처음부터 자갈을 날라 메우듯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상허연구모임 편, 「해방 전후」, 앞의 책, 363쪽.

77) 박영식, 앞의 논문, 상허학회 편, 『이태준과 '현'대소설사』, 깊은샘, 2004, 201~203쪽.

로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는 장면은 그가 『대동아전기(大東亞戰記)』를 번역하게 되는 과정이다. 일제 말기 작중인물 '현'은 창씨개명도 하지 않고, 시국에 소극적인 저항을 보이다가 결국, 이를 탄압하는 일제의 압박에 『대동아전기(大東亞戰記)』의 친일적인 성향의 글을 쓰게 된 것이다.

“시국을 위해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월 좀 허십시오. 사실인즉 도 경찰부에서 '현' 선생 같은 몇 분께서 시국에 협력하는 무슨 일 한 것이 있는가? 또 하면서 있는가? 장차 어떤 방향으로 시국 협력에 가능성이 있는가? 생활비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걸 조사해 올리란 긴급 지시가 온 겁니다.”

“글썸을시다.”

하고 '현'은 더욱 민망해 쓰루다의 얼굴만 쳐다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두 뭘 허신다구 보고가 돼야 좋을걸요? 그 허기 쉬운 창썸創氏 왜 안 허시나요?”

수속이 힘들어 못 하는 줄로 딱해하는 쓰루다에게 '현'은 역시 이것에 관해소도 대답할 말이 없었다.

“우리 따위 하층 경관이야 뭘 알겠습니까만, 인제 누구 한 사람 방관적 태도는 용서되지 않을 겁니다.”

“잘 보신 말씀입니다.”

'현'은 우선 이번의 호출도 그 강압 관념에서 불안해하던 구금이 아닌 것만 다행이 알면서 우물쭈물하던 끝에,

“그렇지 않아도 쉬 뭘 한 가지 해보려던 참니다. 좋도록 보고해 부십시오.”

하고 물러나왔고 나오는 길로 그는 어느 출판사로 갔다. 그 출판사의 주문이기보다 그곳 주간을 통해 나온 경무국의 지시라는, 그뿐만 아니라 문인 시국강연회 때 혼자 조선말로 했고 그나마 마지못해 춘향전한 구절만 읽은 것이 군軍에서 말썽이 되니 이것으로라도 얼른 한 가지 성의를 보여야 좋으리라는 『대동아전기大東亞戰記』의 번역을 '현'은 더 망설이지 못하고 맡은 것이다.⁷⁸⁾

일제의 감시 속에서 작가로 살고 있는 '현'이 일제에 강압당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 시기 『대동아전기(大東亞戰記)』를 번역하게 되는 '현'의 행위는 이태준의 행적과도 일치한다.⁷⁹⁾

그리고 '현'은 이제 동안 자신이 써온 작품세계를 반성하면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

'현'의 아직까지의 작품세계는 대개 신변적인 것이 많았다. 신변적인 것에 즐기어 한계를 둔 것은 아니나 계급보다 민족의 비애에 더 솔직했던 그는 계급에 편향했던 좌익엔 차라리 반감이었고, 그렇다고 일제 日帝의 조선 민족정책에 정면 충돌로 나서기에는 '현'만이 아니라 조선 문학의 진용 전체가 너무나 미약했고 너무나 국제적으로 고립해 있었

78) 상허연구모임 편, 「해방 전후」, 앞의 책, 364~365쪽.

79) 「해방 전후」의 작중인물 '현'의 행위는 이태준의 행적과 동일하게 나타나 이태준의 모습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해방 전후」에 나타난 사건의 순서는 실제 이태준의 연대와 다르게 배치되었다.

앞에서 이태준은 「토끼이야기」(1940)를 쓴 후 고향에 내려갔다고 언급했지만, 1942년을 전후에 이태준은 「지원병 훈련소의 일일」(1940), 「제1호 선박의 삽화」(1944), 『대동아전기』(1943) 등 친일적 성향의 글을 발표한 뒤 철원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그는 1945년 8월 16일에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서울에 올라와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정종'현'에 의하면 「해방 전후」에서는 『대동아전기』 번역을 낙향 이후로 배치한 후, 낙향을 묘사함으로써 '결심'의 진정성을 강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본다.

- 정종'현', 「제국/민족 담론의 경계와 식민지적 주체」, 『이태준과 '현'대소설사』, 깊은샘, 2004, 145~146쪽.

다. 가끔 품 속에 서린 현실자로서의 고민이 불끈거리지 않았음은 아니나, 가혹한 검열제도 밑에서는 오직 인종忍從하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 체관諦觀의 세계로밖에는 열릴 길이 없었던 것이다.⁸⁰⁾

이렇게 이 작품에서 소설가 '현'이 일제의 폭력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굴욕으로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는 것은 주체의 자아성찰 과정이며 이태준의 자아 성찰로도 볼 수 있다.

이 후 '현'은 소일거리로 낚시를 하면 김 직원과의 대화로 시간을 보낸다. '현'은 시골 향교를 지키며 당시 현실 상황에 자신보다 한층 저항적인 김 직원을 유일한 인격자요, 지사의 모습으로 존경한다. 그러나 김 직원은 도유생대회(道儒生大會)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재소에 불려가고 단발과 복색을 핑계로 또 주재소에 가더니, 일제의 강압 수단을 예상한 김 직원은 “사흘이 되어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은 바로 팔월 십오일”이었다.

그러나 '현'은 그날을 아무것도 모르는 채 지나가 버리고, 그 이튿날 친구의 급히 상경하라는 전보에 해방을 예감했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는 해방 직후의 사회상을 서술하고 있다.

“어떻게 된 거야?”

“무에 어떻게 돼?”

“철원은 신문이 왔겠지?”

“어제 방송대루지 뭐.”

“잡음 때문에 자세들 못 들었어. 그런데 무조건 정전停戰이라지?”

두 운전사의 문답이 이에 이를 때, 누구보다도 '현'은 좁은 틈에서

80) 상허연구모임 편, 「해방 전후」, 앞의 책, 377쪽.

벌떡 일어섰다.

“그게 무슨 소리들이오?”

“전쟁이 끝났답니다.”

...(중략)...

“결국 일본이 지구 만거죠. 철원 가면 신문을 보십시오.”

하고 차를 달려버린다. 이쪽 차도 갑자기 구르는 바람에 '현'은 펄석 주저앉았다.

‘옳구나! 올 것이 왔구나! 그 지리하던 것이…….’

'현'은 코허리가 찌르르해 눈을 섬벅거리며 좌우를 둘러보았다. 확실히 일본 사람은 아닌 얼굴들인데 하나같이 무심들하다.

...(중략)...

'현'은 고개를 푹 수그렸다. 조선이 독립된다는 감격보다도 이 불행한 동포들의 얼빠진 꼴이 우선 울고 싶게 슬펐다.⁸¹⁾

'현'은 버스를 타고 상경하던 중 버스 기사들의 대화 속에서 해방을 확인한다. 이에 '현'은 조선 독립에 감격하지만,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주위 사람들의 태도에 실망한다. 이는 해방 당시 조선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해방이 되었다고 해도 약 40년 동안 일제 탄압에 지쳐버린 사람들은 일제 강점기 시대 생활에 익숙해져, 아무리 해방이라도 이제는 사회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무시무시한 일”이었다. 그리고 총독부와 일본 군대가 여전히 조선 민족을 명령하는 서울 정황에 '현'은 불쾌해 한다.

이렇게 해방 직후 현실 상황은 '현'이 해방 전 자신의 소극적 행위에 대한 반성을 하게 하고 사상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계기를 마

81) 상허연구모임 편, 「해방 전후」, 앞의 책, 385쪽.

련한다. 이는 주체가 자아성찰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다. 결국 이 작품에서 자아 성찰하는 '현'은 해방 후 변화된 삶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은 좌익 계열의 문인이 중심이 된 단체의 행동을 경계하기 위해 '조선 문화 건설 중앙 협의회'에 찾아간다. 그러나 '현'은 마침 기초(起草)하고 있던 행동강령을 확인한다. 자신의 걱정이 기우였음을 깨달은 '현'은 선언문에 발기인(發起人)으로 서명 한다. 그리고 울려 퍼지는 적기가(赤旗歌) 속에 고민하던 '현'은 '조선 인민 공화국 절대 지지'라는 현수막 사건을 통해 자기비판과 함께 정세를 판단하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프로 예맹'과의 통합을 계획한다.

이 후, '현'은 미국의 군정에 대한 반감을 가지면서 탁치(託治)의 문제에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반탁의 입장에 서서 강연에 참가한다. 그러나 그는 곧 이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조선 공산당의 찬탁을 인정한다. '현'이 찬탁을 지지하게 된 이유는 상경한 김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드러난다.

김 직원은 그 이튿날도 '현'을 찾아왔고 '현'도 그다음 날은 그의 숙소로 찾아갔다. '현'이 찾아간 날은,

“어째 당신넨 탁치 받기를 즐기시오?”

하였다.

“즐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즐겁지 않은 것도 임정臨政에서 반탁을 하니 임정에서 허는 건 덮어놓고 반대하기 위해서 나중에 탁치꺼리를 지지헌단 말이지요?”

“직원님께서도 상당히 과격하십니다그러.”

“아니, 다 산 목숨이 그러면 삼국 외상헌테 매수돼서 탁치 지지에

잠자코 끌려가야 옳소?”

“건 좀 과허신 말씀이구! 저는 그럼, 장래가 많아서 무엇에 팔려서 삼상회담을 지지하는 걸로 모십니까?”

그 말에는 대답이 없으나 김 직원은 '현'의 태도에 그저 못마땅한 눈치만은 노골화하면서 있었다. '현'은 되도록 흥분을 피하며, 우리 민족의 해방은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국제 사정의 영향으로 되는 것이니까 조선 독립은 국제성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는 것, 삼상회담의 지지는 탁치자청自請이나 만족이 아니라 하나는 자본주의 국가요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인 미국과 소련이 그 세력의 선봉들을 맞댄 데가 조선이라 국제간에 공개적으로 조선의 독립과 중립성이 보장되어야지, 중국은 중국대로 정치·경제 모두가 미약한 조선에 지하 외교를 시작하는 날은, 다시 이조 말의 아관파천식의 골육상쟁과 멸망의 길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까 모처럼 얻은 자유를 완전 독립에까지 국제적으로 보장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왕조의 대한大韓이 독립전쟁을 해서 이긴 것이 아닌 이상, '대한' '대한'하고 전제 제국 시대의 회고감懷古感으로 민중을 '현'혹시키는 것은 조선 민족을 현실적으로 행복되게 지도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 지금 조선을 남북으로 갈라 진주해 있는 미국과 소련은 무엇으로 보나 세계에서 가장 실제적인 국가인들 만치, 조선 민족은 비실제적인 환상이나 감상으로가 아니라 가장 과학적이요, 세계사적인 확실한 견해와 준비가 없이는 그들에게 적정한 응수를 할 수 없다는 것, '현'은 재주껏 역설해 보았으나 해방 이전에는 '현' 자신이 기인여옥이라 예찬한 김 직원은 지금에 와서는 돌과 같은 완강한 머리로 조금도 '현'의 말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그것은 반드시 공산주의의 농간이라 자가류自家流의 해석을 고집할 뿐이었다.⁸²⁾

82) 상허연구모임 편, 「해방 전후」, 앞의 책, 400~402쪽.

이 작품에서 해방 후 적극적인 태도로 사상적 변모를 보이는 '현'의 태도는 당시 작가 이태준의 사상적 변모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위의 인용을 통해 이태준은 해방 전후 자신의 심경변화 과정과 그 이유를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당시 좌익을 선택한 이태준의 변명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주체인 '현'의 개인적 시선이 아니라 타자인 김 직원의 시선도 함께 서술되고 있어 객관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태준은 자전소설을 통해 자기의 개인적 체험이나 변명을 늘어놓으면서도 김 직원을 등장시켜 자전적인 인물을 대상화하여 객관적으로 정체성을 드러냈다.

'현'의 사상적 변모와 심경의 변화도 김 직원과의 관계 변화에서 나타난다. 해방 전 김 직원과 교유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자신을 반성하는 모습과 해방 후 김 직원과 대립관계를 갖게 되면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실천 의지를 가진 모습이 그것이다.

해방 후 좌익 문인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된 '현'은 김 직원을 청조말의 학자 왕국유(王國維)를 떠올리며 스러져 가는 전조(前朝)에 대한 그리움과 충절을 바친 인물로 인식한다.

한 사람 군주에게 연연히 바치는 뜻갈도 가뜩이나 없지 않으나 왕국유가 그 정성, 그 목숨을 혁명을 위해 돌이었던들, 그것은 더 큰 인생의 뜻이요 더 큰 진리의 준엄한 목숨일 수 있었을 것 아닌가? 일제 시대에 것처럼 구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끝내 부지해 온 상투 그대로, '대한'을 찾아 삼팔선을 모험해 한양성에 올라왔다가 오늘, 이 세계사의 대사조大思潮 속에 한 조각 티끌처럼 아득히 가라앉아 가는 김 직원의 표표한 뒷모양을 바라볼 때, '현'은 왕국유의 애뜻한 최후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⁸³⁾

작중인물 '현'이 신탁 통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친구들의 '프로예맹'이나 '전국 문학자 대회'등 좌익 활동을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김 직원은 지나간 왕조에 연연하고 새로운 시대에 흐름에는 동참하길 거부하는 완고함을 보인다. 이는 작중인물 '현'과 김 직원 관계에서 드러나는 '현'의 심경 변화를 통해 이태준은 문학가 동맹으로의 자신의 변모를 서술한다.

해방 후 이태준이 이렇듯 발 빠르게 변신을 하고 나선 데에는 과거의 소극적 행위를 청산하고 지식인으로서의 실천적 삶을 살고자 하는 내적 욕망이 개입되어 있다. 말하자면 이태준은 해방을 맞이한 현시점을 개인적 안위와 명분보다 국가와 민족 전체의 장래를 먼저 생각해야 할 “민족사적 가장 긴박한 시기”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과거 식민시대의 소극적 행위를 반성하면서 보다 능동적으로 민족과 조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자신의 각오를 작품 속에 드러냈던 것이다.⁸⁴⁾

작중인물 '현'을 통해 해방 전 자아 정체성에 문제를 느끼고 이를 반성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며 이전과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해방전후」는 현실 상황을 인식하고 자아 성찰적 태도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변모하는 인물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인물이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정체성이 드러난 소설의 경우, 이를 읽는 학습자는 인물의 행동과 인식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는 방법을 모델화할 수 있다. 학습자가 자아성찰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함으로써 독자 스스로의 성장을 돕는데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83) 상허연구모임 편, 「해방 전후」, 앞의 책, 403쪽.

84) 장영우, 앞의 논문, 상허학회 편, 『이태준과 '현'대소설사』, 깊은샘, 2004, 190쪽.

2. 이태준 자전소설과 정체성 형성

정체성 형성과 자전소설 읽기는 학습자가 자전소설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소설에 대한 이해가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로 전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는 최종적으로 독서 결과의 내면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는 소설 읽기에 있어 수용자의 태도를 중시하는 접근으로, 자전소설 텍스트 속의 인물을 실제 인물로 상정하고 인물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해내며, 수용자 자신을 작품 상황에 대치하여 감상함으로써 문학적 사고와 내면화를 추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정체성 형성과 소설 읽기는 학습자가 소설 속 현실을 경험하고, 이를 자신의 체험과 연관 짓는 과정이다. 이 때, 소설은 정체성 형성 과정으로 구성된 체험의 형식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소설 세계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체험에서도 정체성 형성 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정체성 형성을 위한 소설 읽기의 텍스트로 작가의 직·간접적 체험을 소재로 하여 서술 주체가 경험주체의 정체성을 서술하고 있는 자전소설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태준 자전소설을 통해 주체가 현실 상황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대응하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정체성을 살펴보았다.

이번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태준의 자전소설을 중심으로, 정체성 형성과 자전소설 읽기 교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텍스트의 정체성에 대한 경험

학습자가 소설 읽기를 자신의 정체성 형성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설 속 현실에 몰입하여 인물이 겪고 있는 정체성 문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정체성 문제를 경험하기 위해 학습자는 자신을 인물의 처지에 놓아봄으로써, 인물의 처한 문제 상황을 통해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를 발견하고, 인물의 내면에 대한 체험을 통해 인물의 반응에 공감할 수 있다.

인물의 내면을 체험하는 것은 소설 속 인물을 학습자와 관계없는 타자가 아닌 자신의 체험을 돌아보게 하는 매개자가 되게 한다. 독자는 인물의 시각과 위치에서 인물이 자신에 대해 반성하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이러한 태도를 독자 자신에게도 전이시켜, 스스로 반성적 주체가 될 수 있다.

①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 사태의 발견

학습자는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개인에게 야기하는 고통을 이해함으로써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고향」의 경우, 김윤건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건들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역사적, 반인륜적 식민 통치와 당시 일본에 빌붙어 자신의 안락만을 꾀하고 있었던 한국 지식인들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일제 강점기 시대의 억압과 변절한 지식인들의 민족의식 결여를 문제로 파악할 수 있다.

② 자아와 세계의 객관화

학습자는 자전소설에 형상화된 갈등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인물의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반성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 때 초점화자가 된 인물의 시각에 주목하고, 인물이 자아와 세계에 대해 취하는 인식적 거리 및 태도를 살핌으로써 반성적 태도와 구체적 방법을 파

악할 수 있다.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는 주체에게 반성적 태도를 불러일으키고, 주체는 자기 자신을 반성의 대상으로 포함한다. 이는 주체의 분화를 전제하는 것으로, 주체는 의식하는 주체와 인식의 대상이 되는 주체로 분화되어, 경험 주체를 포함하는 경험 세계를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를 ‘자아와 세계의 객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의식의 주체는 반드시 서술자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서술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시선으로 대상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기 때문에, 초점화자-혹은 반영자 인물이 된다. 초점화에는 주체도 있고 대상도 있다. 초점화자는 인식의 대상인 초점화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난다.⁸⁵⁾

자아와 세계를 객관화하는 주체는 주체-초점화자이며, 자아를 경험 주체로 대상화하여 대상-초점화의 대상으로 삼고, 자기 자신과 주변 인물들에 대해 반성적 시각을 확보한다.

초점화는 반성적 시각을 확보하는 동시에 초점화자의 위치에서 초점화자의 의식을 대리체험하고, 그가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독자들에게 알려 주는 장치이다. 따라서 이태준 자전소설에 나타난 특정한 초점화자의 설정은 세계에 대한 특정한 인식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 이 내면적 고뇌, 행위의 동기, 갈등 상황에 독자를 몰입하게 하는 것이다.⁸⁶⁾ 따라서 이는 작중인물 관점에서 사물을 보여줌으로써 작중인물과의 동일시를 촉진한다.

이는 학습자가 소설을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를 예상할 수 있게 하는 결정된 구조이자, 학습자의 독서체험을 유도할 수 있게 한다. 즉, 학습자는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는 방식-초점화 방식에 주목함으로써, 인물의

85) 임경순, 『국어교육과 서사교육론』, 한국문화사, 2003, 131~132쪽.

86) 우신영, 「서사수용에서 공감의 조정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41~42쪽.

내면을 체험할 수 있다.

이에 자전소설은 작가가 인물의 내면과 정서를 드러내는 방식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인물의 내면을 체험하도록 하는 동시에 작가의 내면도 체험하도록 한다. 「고향」에서 김윤건을 통해 직접적으로 서술된 당시 일본의 탄압과 변절한 지식인들에 비판, 「장마」에서 관찰자로 그려지는 ‘나’가 객관적인 태도로 주변 사람들과 당시 상황을 서술하지만, 그 이면에 비판적 의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해방전후」에서 소설가 ‘현’이 일제의 폭력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굴욕적으로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는 부분들이 그것이다. 이렇게 인물이 자기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드러난 부분, 인물이 자기 주변 인물에 대해 평가적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는 부분, 인물이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반추하고 이에 대해 반성하는 부분 등이 ‘자아와 세계의 객관화’라고 할 수 있다.

(2) 정체성 문제 내면화와 재구성

본 논문에서 제시한 이태준 자전소설은 일제강점기 시대와 해방 전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학습자의 삶과는 거리를 지닌다. 따라서 소설에 반영된 당대 현실을 사회·역사적인 세계를 비판하는 것에 그친다면, 의미 있는 소설 읽기라고 할 수 없다.

학습자가 소설을 읽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소설 속 현실에서 경험한 정체성 문제를 실제 자신의 삶과 연관 짓는 과정을 통해서이다. 따라서 텍스트가 드러내고 발견한 세계를 자신의 입장에 적용하는 소설 읽기가 필요하다.

이처럼 ‘적용’한다는 것은 ‘자기화’한다는 것으로, 소설 속의 문제를 자

신의 문제로 수용하는 것이다. 이는 텍스트 본래의 의미를 넘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습자가 소설을 통해 발견하는 공통점은 사실적인 공통점일 수 있지만, 이태준 자전소설 속 인물들이 겪는 일은 실제로 학습자의 경험과는 사회·문화적 거리가 있기에 사실적인 공통점 보다는 유사성의 발견을 통해 적용해야 한다.

학습자는 인물의 내면과 유사하게 느꼈던 학습자의 경험을 조화함으로써, 자아와 세계를 객관화하는 인물의 반성적 인식을 자신의 인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 이태준 자전소설과 관련한 활동들로 ‘현실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비판적 태도를 가졌던 경험이나 주변 인물의 태도를 비판한 경험(「고향」, 「패강냉」, 「장마」)’, ‘주변 인물을 통해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게 된 경우(「토끼이야기」)’, ‘변화된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지난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던 경험(「해방전후」)’ 등을 떠올릴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그러한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학습자들이 소설에서 경험한 정체성 문제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소설 속 문제를 자신의 현실 세계에서 발견함으로써 이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물의 자기반성 태도를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 태도로 전이 시키는 것이다. 소설 속의 문제를 통해 학습자가 자신이 속한 현실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은 반성의 계기를 제공해 주고, 학습자가 인물의 반성 태도를 자신의 반성 태도로 전이시키는 것은 소설 읽기를 통해 정체성 형성 방법을 모색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에 자전소설은 작가가 자신의 정체성 문제를 자전적인 인물로 형상화하여 이미 정체성 형성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학습자는 자전소설을 통해 작가가 인물을 형상화하 방법에 따라 인물의 정체성 문제

를 자기화 할 수 있고, 이는 작가가 지향하는 삶의 의미도 파악하는 계기가 된다.

학습자의 정체성이 재구성되는 것은 소설 읽기의 과정과 동시에 일어난다. 정체성의 형성은 자아가 경험 세계에 인식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적 측면과 인식의 내용을 자신의 신념으로 구성하는 내용적 측면을 둘 다 포함한다. 학습자는 소설에 드러나는 경험 세계에 대한 인식적 대응 태도를 받아들이고, 동시에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다. 즉, 학습자는 소설을 통해 확장된 경험 세계에 대한 이해를 자신의 삶에 대한 대응 태도로 전이시킴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재구성 한다.

이러한 과정은 학습자가 이태준 자전소설이 어떻게 경험 세계 대한 인식적 대응책을 마련하는지를 해석함으로써 정체성을 드러내고, 경험 세계에 대한 인식 내용을 통해 자신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

이태준 자전소설은 인물이 현실에 대응하여 그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주변 인물과의 관계로 인해 정체성을 형성한다. 「고향」에서 김윤건이 현실에 비판적으로 대응하여 실천적 의지를 보이는 것과 「해방전후」에서 ‘현’이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태준 자전소설의 사건은 작중인물이 정체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사건은 인물 변화 계기와 깨달음의 의미를 제공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인식적 대응을 하게 한다.

「고향」에서 일제의 조선 수탈에 대한 조선 노동자들과의 대화, 조선 청년이라는 이유로 계속 감시받는 행위, 민족적 의기를 가진 청년들을 체포, 투옥된 일제의 탄압, 자기 안위와 이익만을 밝히고 일제와 타협한 지식인들의 모습 등은 김윤건에게 울분을 갖게 하고, 이들 사건들을 통해

체험 주체인 김윤건의 대응은 현실 비판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건의 전개는 기존 태도 유지로 극복이 불가능함을 깨닫게 하고, 실천적 의지를 갖게 한다.

학습자는 돈이 떨어져 여관에서 쫓겨난 김윤건이 배고픔을 느끼면서도 자신은 일제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다짐 하는 부분에서 점차 실천적 의지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방전후」에서도 해방 전 일제의 강압에 전쟁에 참여해야하는 청년들과의 대화, 해방 직후 현실 사회의 변화 인식, 신탁통치에 대한 대응, 김 직원과의 이야기를 통해 작중인물 ‘현’의 대응 인식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일제의 탄압에 소극적이었던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해방 후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하는 모습이 그것이다.

이렇게 학습자가 정체성 형성 과정을 통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것은 학습자가 스스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의 신장을 가져온다.

(3) 정체성의 수용과 성찰

자전소설은 이미 작가에 의해 인물에 대한 외재적 시각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서사 주체가 자기 자신에 대해 반성적 태도를 갖는 것과는 별개로, 학습자는 인물에 대한 반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반성은 학습자의 가치 평가와 가치 지향을 내포하는 것으로, 인물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인물의 행동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공감이나 비판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는 타당한 근거가 필요한 비평적 활동이다. 따라서 이는 자전소설에 드러난 인물의 반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인식적 대응에 대한 이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해방전후」가 수록된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⁸⁷⁾에는 이 작품이 일제하 순수 문학자에서 해방 후 자신의 과거 행적을 반성하고 좌익 문학 단체에의 가담을 보여주는 과정에 대한 변명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도 자료에 언급되어 있다. 이는 학습자가 인물의 솔직한 반성이 작품에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가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인물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학습자가 인물과 동일시됨으로써 형성한 정체성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준다. 즉 학습자는 인물과의 거리 조절을 통해 인물의 정체성 형성을 성찰할 뿐만 아니라, 인물의 정체성 형성을 내면화함으로써 재구성한 자신의 정체성까지 성찰하게 되는 것이다.

IV. 결론

본 논문은 정체성 형성과 자전소설 읽기 교육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자전소설 읽기를 통해 주체의 정체성 문제를 경험하고, 나아가 학습자가 현재 자신을 둘러싼 현실 인식과 자아성찰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II장에서는 정체성 형성과 자전소설 읽기 교육을 살펴보았다. 정체성 형성과 소설 읽기 교육의 텍스트로 자전소설을 적용하기 위해 먼저 소설교육과 읽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소설을 읽는 학습자는 발견적 읽기와 해석적 읽기는 동시에 수행하면서 자기반성을 통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에 적합한 소설교육의 텍스트

87) 홍신선, 박종성, 김강태, 『문학(상)- 교사용지도서』, (주) 천재교육, 2002, 277쪽.

로 자전소설을 제시하여 자전소설과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여러 연구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자전소설의 개념을 정리하고, 자기 서술이라는 자전소설의 고백적 성향이 학습자의 정체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소설 읽기를 통해 학습자는 자전소설에 형상화된 작중 인물을 통해, 소설에서 보여주는 정체성 형성 과정이나 내용을 이해하고, 나아가 자신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 돌아본다. 선주원의 ‘작중인물을 통한 정체성 이해 과정’과 정래필의 ‘자전소설 읽기 과정’을 제시하여 정체성 형성과 자전소설 읽기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행 7차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자서전 읽기와 쓰기 영역에 따라 자전소설 교육의 가능성을 살피고, 학습자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소설교육의 텍스트로 적절하다고 보았다. 이에 7차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자전소설 읽기와 쓰기 영역 중에서 본 논문은 자전소설 읽기 영역을 통해 쓰기 영역 활동으로 제시된 자신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자전소설 읽기 교육을 연구하였다.

Ⅱ장에서 이루어진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Ⅲ장에서는 이태준 자전소설 읽기와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태준 자전소설에서 작중인물은 일제 강점기 현실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드러난 문제를 감지하는데, 이를 대응하는 인물의 태도에서 주체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자전소설의 양식적 특징으로 인해 이태준 자전소설에서 그의 자전적인 인물의 정체성을 파악하면서 이태준의 삶을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서전 읽기 영역의 성취기준에 따르고자 하였다. 이에 이태준 자전소설의 성격과 유형을 작중인물이 현실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현실비판과 실천적 의지, 민족주의적 성향과 과거지향, 자기반성과 자기 성찰적 특징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성격과 유형에 해당하는 소설들을 구체적으로 살핀 후, 소설에 드러난 주체의 정체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태준 자전소설을 대상으로 학습자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모색하였다. 먼저 텍스트의 정체성을 경험하면서, 학습자가 소설을 어떻게 읽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가 자신의 정체성과 텍스트의 정체성을 연관 짓는 활동을 위해 텍스트의 정체성 문제를 내면화하고 재구성하는 과정과 수용과 성찰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 제시된 자아 정체성을 위한 소설 읽기 교육 방법을 재정립하여 이태준 자전소설에 적용한 것으로, 학습자가 이태준 자전소설을 읽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언급하였다.

본 논문은 자전소설이 가지는 경험의 가치가 학습자의 정체성 형성의 인식작용을 활성화하는 교육내용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전소설은 작가의 직·간접적 체험이 드러난 문학 작품으로, 경험주체를 통해 서술 주체의 당대 현실 인식과 자아 성찰 행위가 나타나며 이는 정체성 형성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학습자가 자전소설을 정체성 형성의 틀로 읽음으로써 정체성 문제에 대한 경험을 하는 것은 곧 작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공감과 내면화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전소설 읽기를 바탕으로 학습자는 자신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결국, 학습자가 자전소설을 읽으면서 서술 주체의 행위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이는 적극적인 소설 읽기 방법이 된다.

특히, 이태준 자전소설은 일제 강점기 시대 주체가 위기에 처하고 정체성이 혼란한 상황과 해방 후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는 과정이 구조적으로 드러나기에 정체성 형성을 중심으로 다루기에 적절한 제재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태준 자전소설에 나타난 주체의 현실 대응 방식에 따라 성격과 유형을 나누고, 학습자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이를 적용했다는 데 자전소설 읽기 교육의 가능성을 보였다.

그러나 자전소설을 대상으로 학습자가 정체성 문제를 경험하고, 정체성을 재구성하며 자신의 정체성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자전소설 읽기 교육에서 정체성 형성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기본 자료

이태준, 『패강냉(외)』, 범우사, 2007.

_____, 「역사(歷史)」, 『무서록』, 깊은샘, 1998

상허연구모임 편, 『새로 가려 뽑은 이태준 소설 읽기』, 예옥, 2010.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00호, 교육인적자원부, 2007.

2. 평론 및 소논문

김도희, 「식민 상황과 이태준 자전소설의 변모 양상- <故郷>, <思想의 月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 27집》, 2000.

김동환, 「문학과 읽기 영역의 통합 교육방안- 소설을 중심으로」, 《교과교육 내용 개선을 위한 워크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김연숙·이정희, 「여성의 자기발견의 서사, ‘자전적 글쓰기’- 박완서, 신경숙, 김형경, 권여선을 중심으로」, <여성과 사회> 8호, 창작과 비평사, 1997.

선주원, 「자전적 소설 읽기와 소설교육- 서사적 정체성 구현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제 12호》, 한국독서학회, 2004.

이병렬, 「광복기 작가의 한 유형- 이태준의 변신과 월북문제」, 《승실어문》, 승실어문학회, 1991.

이익성, 「이태준 자전적 단편 소설의 구조」, 《개신어문연구 제 31

호》, 2010.

이태준, 「小設選後」, <문장> 제1권 6호, 1939.7 134쪽.

정래필, 「자전소설의 읽기 방법 연구」, 《독서연구 제 18호》, 2007.

3. 학위논문

김근호, 「허구 서사 창작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문미령, 「김명순 문학 연구- 근대 여성의 자전적 글쓰기 양상 및 의의」,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변경혜, 「이태준 소설의 인물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손윤권, 「박완서 자전소설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진영복, 「1930년대 한국 근대소설의 사(私)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채정은, 「자전소설의 읽기·쓰기 통합교육 지도 방안 연구-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먹었을까」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최경미, 「정체성 형성을 위한 소설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4. 단행본

강진호, 「반공주의와 자전소설의 형식- 박완서론」, 『현대소설사와 근

- 대성의 아포리아』, 소명출판, 2004.
-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04.
- 민충환, 「이태준 작가 연보」, 『이태준과 현대소설사』, 상허학회 편, 깊은샘, 2004.
- 선주원·박기범, 『현대소설 교육론』, 역락, 2010.
- 신동욱, 「이태준 소설에 나타난 민족의식」, 『1930년대 한국소설연구』, 한샘, 1994.
-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우한용 외, 『서사교육론』, 동아시아, 2001.
- 이익성, 「“사상의 월야”와 자전적 소설의 의미」, 『한국 현대소설비평론』, 태학사, 2002.
- 임경순, 「자아 정체성 형성과 이야기 교육」, 『문학교육학』, 2000.
- 장영우, 「이태준 소설의 특질과 의의」, 『이태준과 현대소설사』, 상허학회 편,
- 필립 르죈, 윤진 옮김, 『자서전의 규약』, 문학과지성사, 1998.
-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 허병식, 「이태준과 교양의 형성」, 상허학회 편, 깊은샘, 2004.
- 홍신선, 박종성, 김강태, 『문학(상) 교사용지도서』, (주) 천재교육, 2002.

ABSTRACT

Formation of Identity and Reading Education of Autobiographical Novels

- Focusing on Lee, Tae-Jun's autobiographical novels -

Kwon, mi-ryoung

Major in Korean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s to define the relation between formation of identity and autobiographical novels and to examine reading education of autobiographical novels. It has the meaning to have learners experienced the issue of the subject's identity through reading of autobiographical novels and further to receive help in formation of identity through perception of reality surrounding themselves now and introspection.

Education must restore self-identity of learners who are confused about values and form it. Formation of learners' identity can be considered in connection with the valuable life seeking in literature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us, autobiographical novels could be novel texts to be suitable for much more realistic sympathy by learners for the formation

of their identity.

Autobiographical novels secure reality as they describe direct and/or indirect personal experiences by the authors. Therefore, learners approach closer to characters in autobiographical novels being considered as actual persons than those fictional ones appearing in other novels and understand their life.

Perception of the current reality and behaviors of introspection by the descriptive subject appearing through the experiencing subject in autobiographical novels can be considered as a forming process of identity. Therefore, reading autobiographical novels can be a mediator for formation of learners' identity. That is, learners who read autobiographical novels are to perceive their own life through the experiencing subject like the descriptive subject in autobiographical novels and plan their future under self-examination.

Therefore, this study sets up the direction towards formation of identity in order to connect the reading education of novels in the past focused on understanding of texts only with life of learners and promote the life of learners. Thus, it selects autobiographical novels as the text suitable for this objective and examines formation of identity as well as reading education. And under consideration of that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of the texts in autobiographical novels, interpreting their own life, and widening their understanding about it is a process to form their identity, it examines the formation of identity and reading education of

autobiographical novels.

Particularly, the autobiographical novels by Lee, Tae-Jun contain the subject's situations of confusing identity faced with crisis under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the process seeking for a new identity after the liberation. Those acts by the experiencing subject in the autobiographical novels by Lee, Tae-Jun to perceive the era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after the liberation are the process to form identity. Thus, in this study, it examines the characters and types of autobiographical novels by Lee, Tae-Jun focused on the experiencing subject's perception of reality of the date and introspection classifying into criticism of reality and practical will, nationalistic tendency and past orientation, introspection and self-identification. The perception of reality and the ways responding to reality by characters appeared in the autobiographical novels by Lee, Tae-Jun can be helpful for formation of learners' identity.

And this study examines the forming process of identity focused on the autobiographical novels by Lee, Tae-Jun. Learners are able to seek for their identity through understanding of the novels and form their own identity through internalization of understanding of the novels. For this, learners must read the autobiographical novels by Lee, Tae-Jun following the experiencing subject's forming process of identity. As the concrete process of it, they experience the experiencing subject's identity appeared in the autobiographical novels and restructure it

after internalized as their own issues. This is the process for learners to experience the world in the novels and connect it with their own life. And this study presents it as the process for learners to accept and introspect the identity formed through the texts of novel.

This study is to arrange the reading of autobiographical novels as an educational contents related with formation of identity. Education of formation of identity and reading of autobiographical novels can be the education to reach deep understanding and internalization of the works when education of novel is connected with learners' life.

However, this study has a limit that it could not arrange the concrete teaching-learning method by which learners would experience the issue of identity, restructure the identity and progress up to their own identity.